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갈뱅의 경건으로서의 영성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 전공

김 현 주

갈뱅의 경건으로서의 영성

지도 최윤배 교수

이 논문을 신학석사학위 논문(Th. M. M.)으로 제출함

김현주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 전공

2008년 8월

김 현주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 심: 최 윤 배 교수 _____ 인

부 심: 김 도 훈 교수 _____ 인

부 심: 윤 철 호 교수 _____ 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감사의 글

먼저 본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본 논문 작성에 있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상하게 돌보아 주신 최윤배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의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지도 덕분에 어려움과 좌절을 극복하고 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김도훈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3학기 동안 조교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따뜻한 배려와 용기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논문을 끝까지 읽어 주신 윤철호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 분 교수님들의 제자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보살핌이 있었기에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강력한 기도 동지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신경철 목사님, 박명자 목사님, 김태인 목사님의 뜨거운 기도는 쫓대를 향해서 달려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고,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들의 끊이지 않는 기도과 사랑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헌신과 따뜻한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큰 언니 가정, 둘째 언니 가정, 셋째 언니 가정, 든직한 큰 동생 가정과 막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따뜻한 가족애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신 우리 가족과 행복한 교회 모두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8년 8월

김 현 주

목 차

I. 서론

| | |
|------------------|---|
| A.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 |
| B. 연구 방법 및 범위 | 3 |

II. 영성과 영성 운동들

| | |
|----------------------|----|
| A. 영성의 정의 | 4 |
| B. 기독교 영성에 대한 역사적 개관 | 8 |
| C. 다양한 영성 운동들 | 14 |
| D. 영성과 경건 | 16 |

III. 깔뱅의 경건

| | |
|-------------------------------|----|
| A. 깔뱅의 경건의 형성 배경 | 17 |
| 1. ‘근대적 경건’ (Moderna Devotio) | 17 |
| a. 근대적 경건의 배경 | 17 |
| b. 근대적 경건의 일반적 특징 | 18 |
| c. 근대적 경건의 영성 | 18 |
| 2. 16세기 프랑스 인문주의 | 19 |
| B. 깔뱅의 경건 | 21 |
| C. 경건의 원천 | 25 |
| 1. 성령 | 25 |
| a. 성령의 본질 | 25 |
| b. 성령이 사역 | 28 |
| 1) 성령의 일반 사역 | 28 |

| | |
|-------------------------------------|-----------|
| 2) 성령의 특별 사역 | 29 |
| 2. 성령과 계시 | 31 |
| 3. 갈뎡의 경건과 실존적 신앙 경험 | 35 |
| IV. 갈뎡의 경건의 통전성 | 37 |
| A.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 38 |
| B. 중간을 길을 통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 | 39 |
| V. 갈뎡의 신학에 나타난 경건 | 43 |
| A. 경건과 신지식 | 44 |
| B. 경건과 예배 | 48 |
| C. 경건과 기도 | 50 |
| D. 경건과 창조 및 섭리 | 54 |
| E. 경건과 예정 | 60 |
| VI. 경건과 삶 | 65 |
| A. 자기부정 | 67 |
| B. 십자가를 짐 | 69 |
| C. 내세에 대한 묵상 | 71 |
| D. 현세의 선용 | 74 |
| E.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 77 |
| VII. 결론 | |
| A. 요약..... | 81 |
| B. 평가 및 제언..... | 85 |
| VIII. 참고 문헌 | 87 |

I. 서론

A.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일반적으로 잘못된 영성을 강조하는 부류들과 기성 교회가 끊임없이 논쟁을 해 왔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갈등은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영지주의와 몬타니즘 그리고 4세기경부터 시작된 수도원 운동 등은 교회가 ‘영성’이라는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기독교 교회의 탄생은 성령의 사역 없이는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없는 근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 까닭에 영성이라는 주제를 교회가 잘 사용하였을 경우 엄청난 영적 힘을 줄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교회를 분열시키고 타락시키는 원인도 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¹⁾

‘영성’이라는 단어는 ‘성령’ 혹은 ‘경건’ 그리고 ‘신앙’이라는 단어와의 관련 속에서 사용되어 왔다.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건이라는 말은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가치를 지니는 매우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이다.²⁾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일까?

흔히 ‘진실한 철학자는 경건한 자(者)’라든가 유대교에서는 ‘율법과 하나님을 높이는 것,’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그를 높이는 것’이 경건의 생활이라고 말한다.³⁾ 이러한 폭넓은 의미를 갖는 ‘경건’이란 말은 한국교회에서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으로 인식된다. 즉,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고 하면 ‘신앙심은 있는데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이거나 ‘뭔가 세상적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 현상이 기독교에 까지 미친 영향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부장적이고 불교적이며 무속 신앙적인 영성’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⁴⁾

1) 정홍렬, “루터의 신학과 영성,” 『조직신학속의 영성: 한국조직신학회 논총 7집』 (서울: 대한기독교 서회, 2002), 13쪽.

2) 배경식, “칼빈의 법과 제도 안에서의 경건,” 『칼빈연구: 제 3집』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322쪽.

3) 위의 책, 317쪽.

4) 정행업, “기독교 이단이란 무엇인가?” 『사이비 이단 연구II』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3), 39쪽.

성경은 경건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그렇다면 경건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와 경건한 신앙생활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이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 이니라.”로 기록하고 있는데, 경건이란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는 실천적인 삶을 요구한다.

한국 개신교(기독교) 내에서 장로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므로,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갈뱅의 경건을 찾아봄으로써 온고이지신의 지혜를 얻고자 한다.

갈뱅에게서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인간을 향한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경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갈뱅에게 있어서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지난 1980년대 이후 한국 교회의 부흥이 정체되고 목회자의 자질과 윤리의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면서 교회는 영적으로 피폐해져 교회의 영적인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많은 교회들도 물질적 번영과 세속적 즐거움에 사로잡혀 정신적 또는 영적인 삶에 무감각하거나 형식적인 모양만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시급한 과제는 올바르고 깊은 영성을 회복하는 일이며,⁵⁾ 현 시점에서 갈뱅의 경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건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르기 보다는 세속적인 성공이나 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참 신앙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거부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참된 신앙과 경건을 회복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 고전중의 하나인 『기독교 강요(1559)』를 중심으로 갈뱅의 ‘경건’에 대한 개념을 해석함으로써 전통 신학의 경건 사상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5) 김영선, “웨슬리의 신학과 영성,” 『조직신학속의 영성: 한국조직신학회 논총 7집』 (서울: 대한기독교 서회, 2002), 53쪽.

B.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경건의 신학자로 알려진 깔뱅에게 있어서 경건은 하나님 경외와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웃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깔뱅의 경건 개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깔뱅의 삶과 신학을 중심으로 깔뱅의 경건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 I장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을 서술한다.

제 II장은 영성과 영성 운동들을 자세하게 다룬다. 영성의 정의와 기독교 영성에 대한 역사적 개관, 그리고 다양한 영성 운동들과 영성과 경건 등을 다룰 것이다.

제 III장은 깔뱅의 경건의 형성 배경을 통해서 깔뱅은 영성보다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을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또한 깔뱅은 경건의 원천을 성령과 계시에 두고 있는데, 깔뱅은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성령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자세하게 살펴 볼 것이다.

제 IV장은 깔뱅의 경건의 통전성을 다루고 있다. 깔뱅의 통전적인 경건에 나타나는 두 가지 측면인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과, 중간을 통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 볼 것이다.

제 V장에서는 깔뱅의 신학에 나타난 경건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경건과 신지식, 경건과 예배, 경건과 기도, 경건과 창조 및 섭리, 경건과 예정 등 깔뱅의 신학 사상에 흐르고 있는 경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제 VI장은 경건과 삶에 대해서 다룬다. 깔뱅에게 있어서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깊이 관계되며, 경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경건의 실천 방법으로 자기 부정, 십자가를 짐, 내세에 대한 묵상, 현세의 선용,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등을 자세하게 살필 것이다.

제 VII 장은 본 논문의 결론으로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평가와 제언을 다루었다.

본 논문은 1차 문헌으로 『기독교 강요』(초판)와 『기독교 강요』(최종판) 그리고 깔뱅 주석과 깔뱅의 요리 문답 등을 사용하였으며, 주로 이수영, 최태영, 최윤배, 이양호, 정승훈, 칼빈 연구집들을 참고하였다.

II. 영성과 영성 운동들

A. 영성의 정의

본 논문의 주제는 “갈뱅의 영성”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영성(靈性)(spirituality)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이다. 영성(Spiritualität)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보면 라틴어 ‘스피리투알리타스’(spiritualitas)에서 나온 말로 독일어 단어 ‘가이스티히카이트’(Geistigkeit)에 해당되는데 물질과 반대되는 내적, 정신적(geistig) 본질 또는 내적, 영적(geistig) 본질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⁶⁾ 국어사전은 ‘영성’(靈性)을 신령한 품성으로 풀이한다.⁷⁾ 영어 사전에서 영성(spirituality)을 ‘정신적임,’ ‘영적임’ 등으로 해석하고 있는데,⁸⁾ 이는 영성을 정신적이고, 영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영성’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5세기 경 프랑스의 리에즈 지방의 감독이었던 파우스투스(Faustus of Riez)이다. 그는 “영성의 발전을 위하여 행동하라.”(Age ut spiritualitate proficias)는 말을 하였는데, 여기서 ‘영성’은 사도 바울의 말대로 성령을 따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9세기 폴다의 수도사이던 칸디두스(Candidus)는 ‘스피리투알리타스’(spiritualitas)를 육체성(corporalitas) 또는 물질성(materialitas)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지만, 후에 영성이라는 말은 육체성 또는 물질성과 대립되어 쓰이게 되었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처음에는 “성령을 따르라.”는 의미로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다가 후반부에는 칸디두스와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이처럼 ‘영성’이라는 말은 주로 성직자나 수도사들의 전유물이었다. 17세기 프랑스에서는 ‘스피리투알리테’(spiritualité)라는 말을 경건한 종교적 삶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고,⁹⁾ 독일이나 네덜란드 신학계에서도 주로 ‘경건’(Frömmigkeit; vroomheid)이나 ‘종교성’(Religiosität; religiositeit)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¹⁰⁾ 1930-40년대에 질송

6) 최중호, “영성의 성령론적 이해,” 한국 기독교학회 편, 『한국교회와 영성: 신앙과 신학 제 5집』 (서울: 강남출판사, 1989), 89쪽.

7) 이희승, 『동아새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2000), 2740쪽.

8) 『동아프라임영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93), 2003쪽.

9) 나용화, 『영성과 경건』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237-38쪽.

10) 최윤배, “갈뱅의 경건으로서 영성,” 『개혁교회의 경건론과 국가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편, 2007), 59쪽.

(Étienne Gilson)이 “영성과 신학과 역사”라는 강의를 통해서, 영성이라는 말이 활발하게 사용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영어권에서 ‘스피리츄얼리티’(spirituality)라는 용어 사용이 점차 확산되었는데, 프랑스 로마 가톨릭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 속에서 ‘영성’(Spiritualität; spiritualiteit)이라는 단어가 1960년대 초부터 자주 사용되었다.

독일 현대 개혁파 신학자인 몰트만(J. Moltmann)은 영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영성(Spiritualität)이란 말은 프랑스어 ‘스피리뚜알리떼’(Spiritualité)를 번역한 것이며, 독일어 ‘종교성’(Religiosität)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며, ‘경건성’(Frömmigkeit)의 의미를 내포하지만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 ‘영성’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삶과 하나님의 영광의 살아 있는 교제를 뜻한다.”¹¹⁾

그러므로 영성이란 물질적, 육체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대립되는 것은 아니며, 성직자들의 전유물인 종교성, 경건성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와 높은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성은 기독교 신앙의 용어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요체(要諦)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종교 안에는 인간을 초월하는 신앙의 대상이 있으며, 그 신앙의 대상인 신적 존재와의 관계에서 영성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성이란 ‘영적인 것’에서 나온 것이지만 꼭 종교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표를 제시해 주는 하나의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많은 영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영성은 다양하게 표현되며 표출될 수 있다.

최근에 ‘영성’이란 용어가 매우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기독교 영성 뿐 만 아니라 도교 영성, 불교 영성, 해방 신학 영성, 가톨릭교회 영성, 또한 아시아의 영성, 아프리카의 영성, 제 3세계의 영성, 정치적 영성, 투쟁의 영성, 신비의 영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 처한 장소와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놓고 제각기 영성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¹²⁾ 영성이란 말이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되는지 다음의 분류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 ① 역사, 연대적 척도 : 초기 교회 영성, 중세 교회 영성, 현대 교회 영성 등
- ② 민족, 지리적 척도 : 서양 영성, 동양 영성, 한국 영성, 일본 영성 등

11) J. 몰트만, 김균진 역, 『생명의 영』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2), 117쪽.

12) 최중호, “영성의 성령론적 이해,” 한국 기독교학회 편, 『한국교회와 영성: 신앙과 신학 제 5집』 (서울: 강남출판사, 1989) 88쪽.

③ 생활 상태의 척도 : 수도자 영성, 사제 영성, 평신도 영성 등

④ 직업의 척도 : 교사 영성, 공무원 영성, 의사 영성, 농부 영성 등으로 분류된다.¹³⁾

이 분류로 볼 때 영성사(靈性史)는 근원적으로 같은 한 영성이 때와 장소,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상태와 자세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영성’이란 말이 특정 종교나, 기독교에만 국한된 용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영성을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일반적인 영성이다. 즉, 일반 사상이나 철학 등에서 사용하는 영성을 말한다. 자기가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정신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 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자기의 정신으로 내면화시켜서, 소크라테스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정신을 본받아 사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생각하여 소크라테스를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든지, 공산주의를 받아들여 그 사상에 철저히 지배를 받아 지금까지 그 사상을 모르고 살아온 과거를 후회하고서 조직적인 훈련을 통해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인간 중심적인 자기실현에 초점을 맞춘 영성이다.¹⁴⁾ 이 경우 ‘영성’(spirituality)은 누구의 정신을 받아들여 자기의 정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영성은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이념을 좋게 여겨 그것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로 그 사상이나 이념에 철저히 지배를 받아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어떤 사상이나 정신에 따라서 극기 훈련이나 수양을 통해 자신의 성품이나 사상, 삶을 바꾸려는 인간적 노력이 강하기 때문에 영성보다는 정신성이라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는 종교적 영성이다. 해당 종교나 종교단체가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표현하고, 실현한 종교적 삶의 양식(樣式)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성은 ‘종교성’과 종교적 실천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¹⁵⁾ 특별히 이 영성은 초월자를 탐구하고 고차원적 존재의 도움으로 사람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13) 박재만,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교회의 평신도의 영성,” (한국기독교학회 편), 『오늘의 영성』 (서울: 양서각, 1988), 9쪽.

14) 오성춘, 『영성과 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89), 42-43쪽.

15) 최윤배, “깎땀의 경건으로서 영성,” 『개혁교회의 경건론과 국가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편, 2007), 60쪽.

다. 정신적이고, 지식적인 것을 선하게 여기고 물질적이며 육체적인 것을 저급한 것으로 보는 이원론적인 색채가 강하다.¹⁶⁾ 종교적 영성은 이슬람, 힌두교, 불교 같은 종교의 형태로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으며 금욕주의를 장려한다. 또한 영지주의 같은 기독교 이단들을 통해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요가, 초월 명상, 뉴 에이지 운동과 같은 유사 종교도 여기서 나온다.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이 종교적 영성은 영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즉, 이들은 항상 은혜보다는 공로를 통한 구원을 강조한다. 종교적 영성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신에게로 올라 갈수 있다는 것이다.¹⁷⁾

최근에 뉴 에이지 운동(New Age Movement)이 발달하면서 확산되고 있다. 인간이 우주 중심의 창조자가 되며, 신의 개념을 불완전한 인간에 두고 있는 이 운동은 종교 다원주의, 진화론 등과 동양 사상을 섞어 놓았으며 힌두교와 불교의 윤회설, 인과응보를 받아들인다. 인간 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내재되어 있는 신성을 찾는 방법으로 요가, 명상, 마인드 컨트롤을 이용한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이제는 종말을 맞았다고 주장하며, 성령과 진리를 거스리는 반 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뉴 에이지 운동이 신 영성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젊은이들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따라서 종교적 영성을 가장한 이단, 사이버 영성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교회는 성령을 통한 올바른 성경적인 체계를 세워 바른 영성을 충족시켜야 할 시대적 사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는 기독교 영성이다. 본래 ‘영성’이란 말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기독교는 ‘영성’ 대신 ‘경건’이란 단어를 더 선호하였다.¹⁸⁾ 그러나 1980년 현대개혁파 계통의 신학자들이 경건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성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용어로 보면서,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 영성이란 개념을 제시하였다. 영성이란 인간과 하나님의 수직적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성도 내포하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으로서의 영성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서의 영성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¹⁹⁾ 기독교가 여러 종교들 중 하나라는 종교학적 측면에서 볼 때 두 번째 항목에 넣을 수 있겠지만,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이 기독교 영성 안에서도 갈뱅의 영성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

16) 나용화, 『영성과 경건』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18쪽.

17) <http://blog.daum.net/costmar/11499413>.

18) 노영상, 『영성과 윤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12쪽.

19) 위의 책, 12쪽.

에 타종교의 영성과 기독교의 영성을 구별한 것이다.

맥그라스(Alister E. McGrath)는 영성에 대한 기본 정의를 “영성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종교생활에 대한 탐구이며, 그 종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개념들을 함께 묶어주어 삶과 연관시키는 것으로 그 종교가 정의하는 범위와 규범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인 경험이다.” 라고 말한다.²⁰⁾ 또한 “기독교 영성이란 진정으로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한 탐구이며, 기독교의 근본적인 개념들을 함께 묶어주어 삶과 연관시키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범위와 규범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 경험이다.”라고 정의한다.²¹⁾ 우리는 기독교 영성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영성이란 곧 기독교인의 존재와 삶 그 자체 즉, 기독교의 본질 그 자체이다.

B. 기독교 영성에 대한 역사적 개관

기독교 영성사(靈性史)를 돌이켜 볼 때 ‘영성’이라는 말은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 영성에 대한 이해의 다양성은 최근의 기독교 신학자들에게서 쉽사리 발견된다. 신학의 영향이나 인간의 지식,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 아래서 영성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서양 기독교 영성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초기 수도원 전통의 영성이다. 초기 기독교인의 삶의 패턴은 모세, 엘리야, 세례 요한의 삶을 따르는 금욕주의적인 삶이었다. 이 삶의 모형이 박해시대에 들어오면서 순교정신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순교야말로 완전한 금욕주의적인 삶의 실현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치를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²²⁾ 그러므로 박해시대의 기독교 영성을 순교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를 정식 국교로 인정한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는 기독교에 대한 호혜적인 특권으로 완덕을 추구하는 순교정신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독교적인

20) Alister E. McGrath, *Christian Spirituality* (Bondin, Commall): (Blackwell Publishers, 1999), 2쪽.

21) 위의 책, 2쪽.

22) 유해룡, “기독교 영성의 뿌리,” 『교육교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1993), 53쪽.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영성운동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적인 완덕을 위해서 순교의 정신이 수도원적인 정신으로 대치된 것이다. 이 영성운동은 금욕적인 삶으로서 내적인 악의 세력과 정면으로 대항하며 투쟁하는 삶이다. 이 투쟁의 과정은 자기 자신과 분리함으로서 내적인 정화를 이루며, 점차 이 투쟁이 승화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일치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 그 당시는 신학이 대부분 수도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도원이 경건과 삶을 지탱해 주고 발전시키는 범위 내에서만 신학활동이 허용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영성과 신학이 조화를 잘 이루었기 때문에 영성에 대한 두드러진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었다.²³⁾

스콜라주의 시대(12-13세기)에는 영성에 대한 의미가 조금씩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플라톤 철학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믿음의 경험을 전제하지 않고 순전한 지적인 사유개념으로 신학활동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²⁴⁾ 이처럼 신학이 철학의 영향을 받게 되자 영성과 분리된 사변적인 신학탐구의 가능성이 열려졌으며, 신학과 영성의 분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이성적인 논증과 감성적인 경험’(knowledge and affectivity)을 분리하려는 경향이 뚜렷한 시기였다. 따라서 영성을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경험 즉, 예전과 분리하여 개인적인 기도와 관상, 신비한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²⁵⁾

20세기에 이르러서 평상적인 기독교인의 삶(ordinary)과 비상하고 신비적인 신앙생활(extraordinary)사이의 연속성을 통합하여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1920년의 「금욕주의와 신비주의에 대한 논단」(Revue d'Ascetique et de Mystique)과 영성사전(Dictionnaire de Spiritualité)은 영성이라는 말에 독특한 위치를 분명하게 세워 주었는데, 영성은 기독교적이고 내면적인 삶을 일컫거나 혹은 전통적으로 수덕-신비신학(ascetical-mystical theology)을 일컫는 신학적인 용어라는 것에 일치점을 보고 있다.²⁶⁾

현대에 들어와서 기독교 영성의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

23) 유해룡, “칼빈의 영성학소고,” 『장신논단: 제16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0), 545쪽.

24) 유해룡, “기독교 영성의 뿌리(3),” 『교육교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원, 1993), 87쪽.

25) 유해룡, “칼빈의 영성학소고,” 『장신논단: 제16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0), 545쪽.

26) 위의 책, 546쪽.

현되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 영성이 여러 가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기독교 영성의 각기 다른 측면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노만 샤우척(Norman Schawchuck)은 기독교 영성을 하나님과 인간과의 영적인 교제에 강조점을 둔다. “기독교 영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가운데서 경험하는 삶의 변화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²⁷⁾ 샤우척은 기독교 영성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첫째, 기독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이며, 둘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를 통한 삶의 변화, 셋째,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즉,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은혜의 삶을 강조한다. 샤우척에게 있어서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며 새 사람으로 고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샤우척은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어 인간을 새롭게 고쳐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²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우리 인간의 삶에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존 매쿼리(John Macquarrie)는 영성을 “기도와 예배, 그리고 영적인 삶의 발전과 관계된 다른 모든 실천들을 포함 한다”고 넓은 의미에서 말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 되는 과정으로 이해했다. 그는 인간만이 특별하게 부여받은 영을 개발할 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²⁹⁾

매쿼리에게 있어서 기독교 영성은 인간의 자기초월의 영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성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으로 말한다. 따라서 인간을 피조물 중에서 영을 분배받은 영적인 존재로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했다.³⁰⁾ 매쿼리에게 있어서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의 영역은 성령의 영역이다. 따라서 매쿼리의 기독교 영성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회복만이 아니라, 피조된 전 우주의 회복까지 확장시키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노력하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될 때 진정한 영성을 발휘할

27) 오성춘, 『영성과 묵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89), 50쪽.

28) Norman Shawchuck 외 3인, *How to Conduct Spiritual Life Retreat*, 오성춘·황화자 역, 『영성훈련 지침서』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1), 15-40쪽.

29) John Macquarrie, 장기천 역, 『영성의 길』 (서울: 전망사, 1986), 62쪽.

30) 위의 책, 66-69.

31) 위의 책, 77-78.

수 있다고 보았다.³¹⁾ 매쿼리의 기독교 영성은 사회 참여의 삶을 말하고 있다.

아이리스 컬리(Iris V. Cully)는 교육학적인 각도에서 기독교 영성을 이해한다. 컬리는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에서 기독교 영성을 ‘인간관계들이 다년간의 조심스러운 양육을 통해 성숙하듯이 우리가 영적 삶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진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것이 교육 과정이다. … 모든 교육은 과정이다. 그리고 영적 생활에 있어서 교육은 평생에 걸쳐서 계속 된다’고 말한다. 즉, 인간의 본성과 의도적인 개발의 상호작용이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³²⁾ 컬리의 기독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어떻게 인간과의 관계의 삶을 정의, 사랑, 평화의 관계로 회복할 것인가에 중점을 둔다. 또한 영성이 성령의 역사이지만 인간의 응답을 개발하는 교육과 육성을 통해서만 진정한 영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영성의 교육적 측면을 강조한다.

가톨릭 수도사인 토마스 머튼(Thomas Merton)은 관상(觀想)을 통해 영성을 개발하고자 한 기독교 영성의 독특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는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사람들이 영적, 정신적 고갈 상태에 빠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게 된다. 그는 끊임없는 관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며 역사 변혁과 사회 구조 갱신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것이 머튼의 영성이다.³³⁾ 머튼은 관상의 삶을 살면서도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행동을 촉구한다.

어반 홈즈(Urban T. Holmes)는 그의 저서 『영성과 목회』(Spirituality and Ministry)에서 기독교 영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인간의 관계성 형성의 능력이며 둘째, 그 관계의 대상은 감각 현상을 초월하는 것이며 셋째, 이 관계는 주체의 노력과는 별개의 것으로 확장된 또는 고양된 의식으로서 주체에 의해 인식되며 넷째, 역사적 상황 속에서 본질을 받고 다섯째, 세계 속에서 창조적 행위를 통하여 그 자신을 드러낸다.³⁴⁾

영성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여 하나의 영성을 대표적인 것으로 내세울 수 없으나, 어반 홈즈가 여러 학자들이 각기 강조하고 있는 다양한 영성의 의미를 포괄

32) Iris V. Cully, 오성춘·이기문·유영모 역,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6), 37,75쪽.

33) 나용화, 『영성과 경건』(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19쪽.

34) Urban T. Holmes, 김외식 역, 『목회와 영성』(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29쪽.

적으로 정리하여 표현한 것은 높이 살만한 일이다.

오성춘은 『영성과 목회』에서 흠즈의 5가지 영성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기독교 영성은 관계성이다. 즉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삶을 말한다. 둘째, 이 관계가 감각세계를 초월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적 삶을 통하여 초월을 체험하는 것이다. 셋째, 그 초월된 체험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³⁵⁾

오성춘은 기독교 영성을 첫째, 초월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만남이다. 둘째,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기독교 영성은 역사적인 예수의 삶과 인격과 정신을 본받아 살며 그의 성품을 그리스도인 속에 형성하는 것이다. 셋째, 성령론 적으로 이해하는 영성이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어 맡은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한다.³⁶⁾ 그러므로 오성춘의 기독교 영성은 삼위 일체 하나님을 만나므로 이루어지는 영성이다.

김경재는 “기독교 영성의 특징은 존재의 궁극적 실재, 영원하신 신비이시며 중심자 이신 하나님은 인간들의 인격적 부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에 정초하고 있다.”고 말한다.³⁷⁾ 또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언제나 인간을 세우시고, 지탱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창조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 속에서 숨쉰다.”는 표현을 통해서 기독교 영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이해한다. 또한 김경재는 “하나님은 인간 영성의 씨앗을 심으실 때 관계적 영성, 교류의 영성, 만남의 영성으로 창조하셨다. 인간성은 하나님과 동료 인간과 자연과 서로 교통하고 교류하지 않으면 질식하고 말라 비틀어 죽도록 피조 되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동료 인간,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깊은 연대감에서 예민한 감수성과 교류를 갖고 공동체 의식으로 충만한 생명의 깨어 있음을 기독교 영

35) 오성춘, 『영성과 목회』(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89), 78쪽.

36) 위의 책, 95, 111, 140쪽.

37) 김경재, “주기도문의 영성과 씨알 사상,” 『한국교회와 영성: 신앙과 신학 제 5집』(서울: 강남출판사, 1989), 16쪽.

38) 위의 책, 16쪽.

성의 특징으로 삼는다.³⁸⁾ 그의 영성 이해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강조점은 영성을 강한 현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해방시키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기독교의 영성을 저항적 영성으로 받아들인다.

유해룡은 “칼빈의 영성학 소고”에서 기독교 영성에 대한 분석적이고 유용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시도한다. 첫째, 영성은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의 내면적인 삶과 그 경험들을 다루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면적인 삶이란 경험적인 차원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둘째, 영성은 수동적인 경험이 능동적인 삶을 통하여 현실적인 삶으로 통합되어지는 동안 겪는 영적인 성장 과정을 포함한다. 영성적인 삶이란 영성적인 존재인 인간이 역사적이고 실존적인 삶 속에서 부적합한 선택으로부터 적합한 선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몸부림 자체이다. 이러한 성장 과정을 기독교 영성사에서는 점점 ‘상승하는 과정’으로 비유하였다.

아레오바고의 디오니시우스(Dionysius the Areopagite)는 정화(purification), 조명(illumination), 완성(perfection) 혹은 일치(union with God)라는 3단계의 영적 성장 모델을 제시하였다. 셋째, 영성은 위의 단계적인 영적 성장발달의 결과로서 혹은 절정의 상태로서 신비적인 연합에 대한 속성과 의미를 다루게 된다. 여기서 신비적 연합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를 의미하며, 성령이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게 된다.³⁹⁾

영성의 정의와 기독교 영성의 다양한 이해들을 통해서 첫째, 기독교 영성의 정의나 의미는 삶의 현장이나 체험과 분리할 수 없는 개념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기독교 영성은 다양한 시대와 역사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대표적 정의로 내세울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정의들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기독교 영성이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영성이 개인 수덕이나 자기 부정을 추구하는 소수의 성직자나 종교인의 영적 능력이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현대에 와서 점차로 인간의 삶 또는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말로 폭넓게 사용되어 사회적, 정치 영역까지 포함하는 전인적, 총체적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39) 유해룡, “칼빈의 영성학 소고,” 『장신논단: 제16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0), 546-49쪽.

C. 다양한 영성 운동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영성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이 바른 영성 운동인지를 조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영성 운동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오순절적 영성 운동은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운동으로 성령 받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 영성 운동은 성령 세례와 성령의 능력을 강조한다. 방언은 성령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이고, 신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본다.⁴⁰⁾ 오순절적 영성 운동은 무엇인가 얻으려는 특징이 강하다. 성공에 대한 소망과 건강의 축복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어 신비주의나 열광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방언, 예언, 신유 등 특정 은사만을 중시하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 가르침, 섬김과 봉사의 은사 등과 같은 성령의 보편적인 열매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⁴¹⁾ 오순절적 영성운동은 다른 영성 운동에 비해 사회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가톨릭적 수도원적 영성 운동은 인간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여 그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을 억제하고 성화에 이르려는 특징이 있다.⁴²⁾ 이 영성 운동의 일반적 특징은 버리려고 하는데 있다. 청빈을 중요한 삶의 덕목으로 생각하고 가난한 마음 속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또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명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고자 하는 장점이 있지만, 인간의 육체를 저급하게 생각하고 죄악의 근원이라는 헬라철학의 플라톤 주의적 사상은 인간을 전인(全人)으로 보는 성서 이해와 충돌되는 모순이 있다.⁴³⁾

해방의 영성 운동은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신학자들에 의해 주창된 개념으로, 예수를 따르다는 것은 모든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것을 의미했다. 즉, 모든 잘못된 질서를 타파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역사 속에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구띠에레즈는 “해방의 영성은 이웃들, 억눌림 당하는 사람들, 착취당하는 사회 계층, 멸시당하는 인종, 식민지 국가들 등을 위한 회심(conversion)을 중심으로 삼는다.” 고 말한다.⁴⁴⁾ 이 영성 운동은 그리스도의 구

40) 이종성 외 3인, 『통전적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61쪽.

41) 홍성주, 『21세기 영성신학』 (서울: 은성, 1995), 73쪽.

42) 김명용, 『이 시대의 바른 기독교 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2), 57쪽.

43) 이종성 외 3인 공저, 『통전적 신학』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148쪽.

44) 노영상, 『영성과 윤리』 (서울: 대한 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1), 198쪽.

원 영역이 인간의 영적 영역과 종교적 영역에만 제한되지 않고 사회적 역사적 차원을 지닌 큰 장점이 있는 반면, 특정 이데올로기와 그리스도교의 영성운동을 일치시키는 편향적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과 체험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은 성서적이지 못하다.

지금까지 다양한 영성 운동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세 가지 영성 운동들은 그것을 기초하고 있는 신학적 근거가 너무 다르고, 서로를 배격하고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각 영성 운동이 지닌 장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합칠 수 없다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이에 대해 김명용은 개혁과 신학의 영성의 기초를 중심으로 바른 영성을 위한 신학적 체계를 형성하는 “통전적 영성 신학”을 주창한다. 바른 영성 운동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개혁과 신학의 영성은 다음과 같다. 개혁과 신학의 영성은 하나님 중심의 삶(God centered Life)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가르쳤으며, 언제나 말씀 중심적인 영성을 강조한다. 이 영성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진정한 영적인 삶으로 이해했다. 즉,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체적 삶 속에서의 절제와 청지기직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있고 영성이 있다고 보았다.⁴⁵⁾

21세기를 위한 바람직한 신학은 통전적 신학(Holistic Theology)이다. 통전적 신학은 영혼과 육체, 개인과 사회, 인간과 피조물을 통합하는 신학을 의미한다. 즉, 구원론의 차원이 영혼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역사와 사회로 확장된 것은 바람직한 발전이다. 그러므로 인간과 피조물을 통합하는 통전적 신학이 가장 바람직한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⁴⁶⁾

우리는 최소한의 기독교 역사와 각 시대에 나타난 기독교 영성에 대한 역사적 개관을 통해서 기독교 영성의 기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 영성은 삼위일체론적인 기초를 가져야 한다.⁴⁷⁾ 기독교 영성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경험되어야 한다. 기독교인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역동적이고 생동력 있게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며 사는 영성의 존재이다. 따라서

45) 김명용, 『이 시대의 바른 기독교 사상』(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1), 60쪽.

46) 위의 책, 113쪽.

47) 최윤배, “갈뎡의 경건으로서 영성,” 『개혁교회의 경건론과 국가론』(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편, 2007), 66쪽.

기독교 영성은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교제를 추구하는 전인적인 삶(holistic life)으로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과 자연을 향하여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사는 삶이다. 둘째,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영성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우주만물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따라서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나 기독교 영성은 이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이 세상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참된 존재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한계를 바로 인식함으로써 이 세상을 바르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⁴⁸⁾ 셋째, 기독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식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독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영성의 실체를 찾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린 것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화목의 관계이다.⁴⁹⁾ 넷째, 기독교 영성은 성령론적이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현실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활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령은 우리의 영성이 바른 영성이 되게 하는 능력이다. 몰트만은 성령을 생명의 영으로 규정했고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은 삶과 생명을 위한 영성으로 보았다. 즉 몰트만은 인간과 세상에 삶과 생명을 주시고 또한 풍성하게 주시는 영이 성령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성령은 삶과 생명의 힘의 원천이다.⁵⁰⁾

D. 영성과 경건

이수영은 깔뱅의 경건을 다루면서 ‘경건’(piété)과 ‘영성’(spiritualité)이라는 두 용어가 상호 동일시되거나 서로 잘못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 용어들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수영에 의하면, 영성은 경건과 다르지는 않지만, 경건보다 그 의미가 더 넓다고 본다. 즉 경건은 영성보다 더 좁고, 더 상세하고, 더 구체적인 개념이다.⁵¹⁾

48) 이수영, “영성에 의미에 관한 조직신학적 고찰,” 『오늘의 영성신학: 신앙과 신학 제 4집』 (서울: 도서출판 양서각), 98-99쪽.

49) 위의 책, 100쪽.

50) 김명용, “몰트만(J. Moltmann)의 영성신학,” 『장신논단: 제18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2), 249-53쪽.

51) 최윤배, “깔뱅의 경건으로서 영성” 『개혁교회의 경건론과 국가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2), 100-101쪽.

영성이란 용어가 ‘경건’보다 더 광의적이며, ‘경건’이란 용어가 영성보다 더 협소하고 제한적일지라도 ‘경건’이란 용어가 갈뱅과 개혁교회 전통에 더 친근하고 더 적절해 보인다. 왜냐하면 갈뱅은 ‘영성’이라는 프랑스어 ‘스삐리뚜알리떼’(spiritualité)라는 명사형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영적 본성 또는 속성, 즉 신론과 관련해서만 사용하였다.⁵²⁾ 갈뱅은 ‘영적’이라는 프랑스어 형용사 ‘스삐리뚜엘’(spirituel)이라는 단어를 성령론과 관련시켜 자주 사용하였는데, 이는 갈뱅의 경건 개념이 성령론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음을 말해 준다.⁵³⁾

Ⅲ. 갈뱅의 경건

A. 갈뱅의 경건의 형성 배경

1. ‘근대적 경건’(Moderna Devotio)

a. 근대적 경건의 배경

사변적인 신학 운동과 지성 중심의 스콜라주의가 막을 내리는 14-15세기 초에는 세속 군주들이 교회의 교권을 장악하여 수도원의 타락은 극에 달했고, 로마 교회는 딱딱한 분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덴벤테의 게르트 그로테(Geert Grote)의 회개와 경건생활을 강조하는 설교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네덜란드와 독일의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영성 운동이 자생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운동을 ‘근대적 경건’(Moderna Devotio)이라고 부른다.⁵⁴⁾ 이 근대적 경건 운동은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지하며 도덕적으로 부패한 성직자들에게 새로운 각성과 회개를 촉구했으며 이에 자극을 받은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며 사도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

교 대학원 편, 2007), 70쪽.

52) Inst., I xiii 1.

53) 최윤배, “갈뱅의 경건으로서 영성,” 『개혁교회의 경건론과 국가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편, 2007), 70쪽.

54) 유해룡, “후기 중세 시대의 신 경건 운동,” 『교육교회』 2월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연구원, 1994), 64쪽.

b. 근대적 경건의 일반적 특징

근대적 경건주의자들의 삶은 소박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나 스콜라주의 시대의 새로운 수도원 운동인 탁발 수도자들처럼 결식하는 생활방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일하며 자급자족하는 생활이었다. 남자들은 경건 서적 등의 필사본을 만들었고, 여자들은 주로 옷감 짜는 일을 하며 지냈다. 이들은 지역교회의 예배에 참석했으며⁵⁵⁾ 겸손과 사랑 등 도덕적인 실천과 덕을 쌓아가는 것을 강조했다. 이들의 영성생활은 성서를 읽고 명상하는 것이었다. 근대적 경건 운동의 창시자인 그로테(Geert Grote)는 당시 유일한 종교 언어인 라틴어를 평민들이 읽을 수 있는 지방어로 번역하는 일에 몰두했다. 이것은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서와 경건서적을 읽게 함으로서 경건생활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근대적 경건 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성서를 읽으며 도덕적 진보와 영적인 내면화의 개발을 위해 힘썼다. 그들의 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리스도와 예수라는 말이다. 특히, 역사적 예수의 고난에 깊은 애정을 가졌다. 이들은 이 역사적인 예수를 통해서 임박한 죽음과 심판을 보며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내면적인 헌신을 경험한 것이다.⁵⁶⁾

c. 근대적 경건의 영성

토마스 아 켐피스는 근대적 경건주의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며 그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Mitatio Christi)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관한 가장 위대한 고전 중의 하나이다.⁵⁷⁾ 이 책은 토마스 아 켐피스의 독창적인 작품이 아니라 근대적 경건주의가 가르치고 실천하고 있는 생활들을 정리하고 편집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근대적 경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모두 4권으로 분류되는 데, 첫 권은 세상의 헛된 지식을 경멸하고 마음의 통회를 이루어 평화를 얻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며 겸손을 배우고 자기 정화를 위해 금욕적인 수련생활을 강조한다. 둘째 권은 내면적인 삶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55) 엄두섭, 『기독교 영성의 흐름』 (서울: 은성, 1998), 124쪽.

56) 유해룡, “후기 중세시대의 신 경건 운동,” 『교육교회』 2월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1994), 66쪽.

57) L. Joseph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21쪽.

서 사랑으로 겸손해지는 것과, 셋째 권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참된 자유와 위로를 얻게 됨을 역설한다. 넷째 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비적 합일을 이루는 것은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며 성만찬 자체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의 절정이라고 보았다.⁵⁸⁾

근대적 경건은 영적인 변화(conversion)에 목표를 둔다. 그것은 어떤 순간적 환희에 대한 경험이 아닌 주님을 향하는 의지적 결단의 순간에서 시작된다. 여기서부터 영적인 형성(Spiritual training)이 이루어지는 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을 강조하며, 이것을 영성 훈련이라고 한다. 근대적 경건운동의 영성 훈련의 궁극적 목적은 “마음의 정화”에 있다. 이와 같은 근대적 경건주의자들의 태도는 에라스무스와 종교 개혁자인 루터와 칼뱅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이런 의미에서 근대적 경건 운동을 종교 개혁의 전야제라고 부르기도 한다.⁵⁹⁾ 그러나 비록 칼뱅이 근대적 경건운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칼뱅의 경건 형성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요소에 불과하다.

2. 16세기 프랑스 인문주의

칼뱅의 경건의 직접적인 배경을 밝히기 위해서 16세기 프랑스 인문주의의 영성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16세기 프랑스 인문주의는 고전적 인문주의와 복음적인 경건이 혼합된 사상이다. 이러한 결합으로 인해 종교개혁과 신학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전개되었다. 프랑스 인문주의는 근대적 경건운동의 영향으로 이탈리아 인문주의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독특하고 독창적인 영성을 소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16세기 다양한 프랑스의 사상의 중개인이며 통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장 게르송(Jean Gerson)이다. 그는 프랑스 사상의 출발점과 종착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으며 다음 세기의 전체 역사에 영향을 끼쳤다.⁶⁰⁾ 그는 신학과 경건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했으며 영성과 하나님에 대한 명상을 종교개혁의 첫째 조건으로 삼았다. 그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조건은 기도, 자기성찰, 겸손이었다. 그는

58) 엄두섭, 『기독교영성의 흐름』 (서울: 은성, 1998), 127쪽.

59) 유해룡, “후기 중세시대의 신 경건 운동,” 『교육교회』 2월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 연구원, 1994), 68쪽.

60) L. Joseph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49쪽.

일평생을 신학과 경건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고 노력했다. 또한 게르송에게 있어서 성경은 신학의 기초였다.⁶¹⁾

프란체스코 페트라취(Francesco Petrarch)는 이탈리아 초기에 내적이고 개인적인 영성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 페트라취의 영성은 ‘경건’(pietas)으로 표현된다.⁶²⁾ 그의 인문주의는 ‘체험된 경건’으로 불렸다. 그는 내적성찰(內的省察, introspection)을 중시했는데, 자기를 아는 지식(self-knowledge)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갖게 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이끈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자기 지식은 신앙과 성육신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경건을 최고의 덕목으로 보았다.

프랑스의 르네상스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에라스무스(Erasmus)이다. 그의 ‘기독교 훈련교본’(Enchiridion Militis Chrisiani)은 기독교의 경건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했고 신학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였다. 즉 그리스도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성품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삶의 방법이 기록되었다.⁶³⁾ 에라스무스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본질은 창조주에 대한 개인의 태도라고 보았으며 이것이 경건(pietas)의 개념이었다. 에라스무스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영성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 본다. 그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될 방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근대적 경건 운동과 같이 내적 생활을 강조하면서도 신학과 영성을 결합시키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그의 신학은 경건(pietas)과 교육(eruditio)이 결합된 경건의 교리(pia doctrina) 즉, 신학과 영성간의 결합을 이룬 것이다.⁶⁴⁾ 이 사상은 프랑스 인문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지금까지 깔뱅의 경건의 배경이 된 근대적 경건과 16세기 프랑스의 인문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근대적 경건은 개인적인 경건이 강조되었다. 이 운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스콜라주의의 지식중심의 사변적인 신학에 대한 반발로 경험을 중시함으로써 경건과 신학의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근대적 경건의 영향을 받은 16세기 프랑스 인문주의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경건과 신학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들은 교회의 권위보다 인

61) 위의 책, 52쪽.

62) 위의 책, 54쪽.

63) 위의 책, 57쪽.

64) L. Joseph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97쪽.

간의 존엄성을 강조했으며, 중세 교회의 모순과 부도덕을 지적하면서 교황권의 몰락을 촉진시켰고 종교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감당했다.

B. 갈뱅의 경건

갈뱅은 ‘경건’을 라틴어는 ‘피에타스’(pietas)라는 용어로, 불어로는 ‘삐에떼’(piété)로 사용하는데, 고전적 ‘피에타스’ 문법과는 다른 점이 발견된다. 즉 고전 라틴어 ‘피에타스’(pietas)는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에 관련된 것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하고 존중하며 순종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적 사랑과 배려를 뜻했다. 그러나 경건은 가정의 영역을 넘어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는데, 왕 또는 황제나 국가에 대한 경외나 충성심을 의미하기도 했다. 하나님을 최고 통치자로 생각했던 초대 기독교인들은 ‘경건’이라는 단어를 더 높은 차원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들 간의 관계를 가리켜 사용되었다.⁶⁵⁾

갈뱅이 말한 경건은 신약에서 ‘유세베이아’로 번역된다. 이 말은 사도행전 3장 12절을 제외하고 모든 목회 서신과 일반서신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뜻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 곧 경건, 거룩, 종교”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다.⁶⁶⁾ 이처럼 갈뱅의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being like god)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갈뱅에 대한 연구들과 옛 학문에서 갈뱅에 대한 평가는 냉정한 논리기로 설명되곤 했다. 따라서 갈뱅은 경건보다는 학문적이고 지적(知的)으로 이해되어온 경향이 있었다. 갈뱅 신학의 결정체인 『기독교 강요』(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는 어느 한 장이 아니라, 그 책 전체를 경건에 할애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기독교 강요』를 이끌어가는 주된 관심은 ‘경건’에 있다. 갈뱅은 『기독교강요』 초판(1536)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경건의 전체와 구원 교리에서 필히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을 포함한 이 저작은 경

65) John Calvin, *The Piety of John Calvin*, 이형기 역, 『칼빈의 경건』(서울: 크리스찬 다 이제스트, 1989), 29-30쪽.

66) F. L. Battles, *True Piety According to Calvin*, 293쪽.

건을 사랑하는 모든 이가 읽을 가치가 있으며, 최근에 출판되었다.⁶⁷⁾

이 긴 제목은 전체적으로 『기독교강요』의 성격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즉, 경건과 구원에 관계된 책이라는 것이다.

갈뱅이 『기독교 강요』를 처음 출판할 때 그 당시 프랑크 왕 프랑스와 1세에게 드리는 헌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지극히 영광스런 왕이시여, 제가 처음 이 저술에 손을 댔을 때 폐하에게 바쳐질 어떤 것을 쓴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나의 목적은 단지 어떠한 기초적인 사실들을 전달함으로써 그것에 의해 종교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경건에도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⁶⁸⁾

갈뱅이 이 책을 쓴 목적은 신자들이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기초적인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이처럼 갈뱅은 처음부터 ‘경건’에 대해서 언급한다. 따라서 그의 주된 관심이 경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갈뱅은 『기독교 강요』(1559년)의 “독자에게 드리는 글”에서 자신의 사역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가 교회에서 교사의 직책을 맡은 이후 순수한 경건의 교리를 보존하여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의도도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양심적으로 떳떳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또 천사도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다.⁶⁹⁾

갈뱅은 교회의 교사 직분도 순수한 경건의 교리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여겼다. 따라서 그의 신앙과 연구 목적, 삶의 목표와 사역의 방향 등 최종 종착지는 ‘경건’이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경건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경건을 향한 일종의 갈망(aspiration)이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거룩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⁷⁰⁾

67) L. Joseph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편역). 『갈뱅의 영성』(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133쪽.

68)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원광연 역, 『기독교 강요』,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16쪽.

69) 최태영, “갈뱅의 신학과 영성,” 『조직신학 속의 영성: 한국조직신학회 논총 7집』(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32쪽.

칼뱅에게서 경건은 그의 신학 전체의 방향이며 목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립 홀트롭(Philip C. Holtrop)은 칼뱅의 신학을 ‘경건의 신학’으로 정의한다.⁷¹⁾

칼뱅은 최초 『요리문답서』(1538, 라틴어판)에서 ‘경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두려움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참된 경건이란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이 같은 경건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성급하게 어떤 신을 고안해내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그에게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찾으며 그가 자신을 보여주고 선언하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다.⁷²⁾

여기에서 칼뱅이 말하고자 하는 경건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알려 주시는 그대로 그분을 믿으며 이해하는 것이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뱅은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를 향한 사랑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뜻한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으로 양육을 받으며, 자기들의 모든 선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따라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지 않는 법이다.”라고 정의한다.⁷³⁾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결합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앎으로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건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칼뱅은 「시편 주석」에서 시편 119:78절을 주석하면서 신자들이 가진 경건의 참된 본질을 두 가지로 나타낸다. 첫째는 경외인데,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서 생각

70) Inst., III xix 2.

71) Philip C. Holtrop, 박희석·이길상 역, 『기독교 강요 연구 핸드북』(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5), 13쪽.

72) John Calvin, *The Piety of John Calvin*, 이형기 역, 『칼빈의 경건』(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9), 25쪽.

73) Inst., I ii 1.

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둘째는 두려움인데,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을 말한다.

또한 경건 안에는 지식이란 개념도 포함된다. 「예레미야 주석」(10:25)에서 칼뱅은 신지식(cognitio Dei)이 경건의 출발점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신지식의 열매요 경건의 증거이다. 칼뱅은 경건에 이르는 첫걸음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⁷⁴⁾ 칼뱅은 경건과 사랑을 상호 관련시킨다. 「에스겔서에 대한 강좌」(18:5)에서 경건은 사랑의 뿌리라고 말한다.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형제들 사이에서 정당한 삶을 누릴 때도 사용되었다.⁷⁵⁾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보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표현되는 경건은 이웃에 대한 표현인 사랑보다 우위에 있다. 칼뱅에게 있어서 경건이란 일차적으로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

칼뱅의 경건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경외’등의 용어가 경건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낳을 뿐만 아니라, 낙심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 때에 그 은혜의 감미로움과 즐거움은 그 사람의 마음을 두려움과 동시에 찬탄으로 가득하게 채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권능에 겸손히 복종하게 한다. 누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기도를 경건과 하나님 경배의 열매와 증거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옳은 것이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와 떼어 낼 수 없으며,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와 주로 알고, 자신을 그분께 헌신하지 않는다면, 경건하다고 여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칭송되는 것은 진실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쁨과 진정으로 순종할 때 생기는 자발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다.⁷⁶⁾

성령의 검에 우리 자신이 죽임을 당하여 완전히 무(無)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지도 않고, 경건의 기초적인 사실들을 배우게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죽이는 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사해 주는 것이다.⁷⁷⁾

이처럼 칼뱅이 경건을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많이 언급한

74) John Calvin, *The Piety of John Calvin*, 이형기 역, 『칼빈의 경건』 (서울: 크리스찬 다 이제스트, 1989), 27쪽.

75) 위의 책, 27쪽.

76) 이수영, 『개혁신학과 경건』, 271쪽에서 재인용.

77) Inst., III iii 8.

다. 그것은 이 두 단어가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또 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예로, 기독교 강요 라틴어판에서는 ‘참된 경건’이라고 쓴 것을 불어판에서는 ‘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두려움으로’의 라틴어를 ‘참된 경건 속에서’라고 바꾸어 사용하였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칼뱅이 이해한 경건의 의미의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 주고 있다.⁷⁸⁾

칼뱅의 경건 속에서는 ‘경외’라는 용어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나란히 붙어 나온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 ‘경외’의 뜻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에서 ‘여호와 경외’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경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근본이라고 할 때(잠언 1:7)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신뢰로 가득 찬 관계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경외’ 등의 용어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모두가 함께 합쳐져서 진정한 경건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칼뱅은 자신의 책이 ‘신학대전’이 아니라 ‘경건의 대전’으로 불리길 원했을 만큼⁷⁹⁾ 『기독교 강요』를 이끌어 가는 주된 관심이 경건에 있다.

C. 경건의 원천

1. 성령

a. 성령의 본질

칼뱅에게서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다. 칼뱅은 하나님의 본질을 영원성과 자존성(自存性, aseity; aseitas)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존성이 그의 놀라운 이름을 통해서 두 번씩 선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⁸⁰⁾

78) 이수영, “경건과 영성 신학,” 『개혁신학과 경건』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6), 272쪽.

79) 정승훈, 『종교개혁과 칼빈의 영성』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2001), 17쪽.

80) Inst., I x 2.

갈뱅 당시 젠틸리(Gentili)는 성부와 성자에게만 하나님의 ‘신성(神性)’과 하나님의 ‘자존성’을 돌리고 성령에게는 돌리지 않았다. 이에 갈뱅은 성령에게도 하나님의 신성과 자존성을 돌려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성령은 곳곳에서 성령께서 중생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그것도 빌려온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중생을 이루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고, 또한 중생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생을 베푸시는 주체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성자의 경우도 그랬듯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기능들이 그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 만일 성령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실체가 아니시라면, 선택과 의지가 그에게 있다는 식으로는 결코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께 신적 권능이 있음을 매우 분명하게 가르치며, 또한 그가 본체로(hypostatically)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⁸¹⁾

갈뱅에게 성령은 삼위일체의 제 3위의 신적 인격으로서 하나님 자신이다. 갈뱅은 『기독교 강요』 초판(1536)에서 사도신경의 ‘성령을 믿사오며’를 해석하면서, 성령을 삼위일체 제3위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더욱 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계시며,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이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본질이며, 아버지와 아들과 영원하고, 전능하사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다.⁸²⁾

이와 같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본질이시며, 동시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써 단일하고 유일하신 본질(essence)을 생각하며, 또한 그 안에 삼위(persons) 혹은 세 본체(hypostases)가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⁸³⁾

갈뱅에 의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다. 그에게 있어서 성령의 힘과 능력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는 자신의 고유성으로서 근원을 가지며, 성자는 지혜 또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성령은 자신의

81) Inst., I xiii 14.

82)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양낙홍 역,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8), 141쪽.

83) Inst., I xiii 20.

고유성으로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⁸⁴⁾ 곧 모든 활동의 시작과 모든 일의 근원은 성부께 있고, 지혜와 모든 일의 질서 있는 시행은 성자에게 있으며, 그 활동의 능력과 효력은 성령께 있다는 것이다.⁸⁵⁾ 갈방은 삼위일체론 속에서 제 3위의 위격으로서 성령에게 돌려지는 고유성을 능력이나 힘으로 묘사할 뿐 아니라, 성령의 활동과 명칭을 결부시켜서 성령을 힘과 능력으로 묘사한다.⁸⁶⁾

갈방에게 있어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부의 영인 동시에 성자의 영이시다. 갈방은 이 명칭들을 구별 없이 사용한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만, 그는 또한 성령을 충만히 아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아들의 풍성하신 역사를 수종 들며 맡아서 담당하도록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가리켜 때로는 “아버지의 영”이라 부르고, 때로는 “아들의 영”이라 부르는 것이다.⁸⁷⁾

따라서 갈방은 성령이 오직 성부만의 영이라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전제로 인해서, 성령은 오직 성부만의 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성령이 근원적인 본질에서 파생된 분이라면, 그 본질은 오로지 성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결국 성자의 영으로 간주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증언이 이런 논리가 부당함을 입증해 준다. 그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또한 성부의 영으로도 말씀하시는 것이다(롬8:9). 더욱이 만일 성부의 위격이 삼위일체로부터 제거된다면, 오직 그만 하나님이라는 것 외에 그가 과연 성자와 성령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는가?⁸⁸⁾

우리는 성령의 본질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신성과 자존성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시며, 삼위일체의 제 3위격이시며, 자신의 고유성으로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발휘하시는 분으로 이해한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부의 영이시며 성자의 영이시다.

84) 최윤배·박계순, “갈방의 삼위일체론적 성령론,” 『칼빈연구: 제 3집』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91쪽.

85) Inst., I xiii 18.

86) 최윤배 외 3인 공저,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3), 285쪽.

87) Inst., III i 2.

88) Inst., I xiii 23.

갈뱅에게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동일한 한 하나님이다. 만일 성령의 신성과 위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위일체론을 비롯한 종속론적 반 삼위일체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

b.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은 크게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으로 나뉜다. 성령의 일반사역은 창조주 및 섭리주 성령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섭리 사역에 해당되고, 특별사역은 구속(재창조, 새 창조)의 수행자(effecter)로서 구속 사역을 하신다.⁸⁹⁾

1) 성령의 일반 사역

갈뱅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섭리주 하나님이다. 따라서 갈뱅은 “한 분 하나님 자신 이외에는 창조되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창조의 능력과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공통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곧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이외의 다른 조성자(造成者)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라고 말한다.⁹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섭리주 하나님의 섭리 사역 가운데 이미 성령의 사역이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령은 이처럼 창조 세계의 생명의 근원이다. 따라서 창조세계에 대한 성령의 중요한 사역은 창조세계를 보전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성령은 죽어가는 창조세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사역을 한다.⁹¹⁾

성령의 사역은 일반 은사(common grace; 자연 은사)속에서도 활동하신다. 인간의 유익한 것이나 진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일반 은사인 데, 노예제도 폐지 운동, 여성 해방 운동, 과학, 문화, 예술의 발전 등에서 인간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령의 일반 은사이다. 갈뱅은 “능력, 성화, 진리, 은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체의 선이 다 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의 근원은 오직 한 분 성령이시기 때문이다.”(고전 12:11)라고 말한다.⁹²⁾ 여기서 우리는 “은사는 여러 가지요, 성령은 같다.”(고전 12:4)

89) 임창복·최윤배,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 유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85쪽.

90) Ins., I xiii 24.

91) 최윤배, “복음주의 신학,” 강의안, 25쪽.

라는 바울의 진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각종 은사들의 시초요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베푸시는 장본인이시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⁹³⁾ 따라서 갈방은 성령의 일반 은사가 인간의 삶 속에 유익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인류의 공통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성령의 지극히 탁월한 은사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막을 짓는 데에 필요했던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총명과 지식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여하신 것이었다(출 31:2-11; 35:30-35). 그렇다면 인간 생활에서 가장 탁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말하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만물을 채우시고, 움직이시고 또한 생기를 불어 넣으시며, 또한 자신이 친히 창조의 법칙을 따라 각 종류에게 부여하신 그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유지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물리학, 변증학, 수학 등의 학문들에서 불경건한 자들의 업적과 활동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셨다면, 마땅히 그런 도움을 받아들이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학문들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선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나태함에 대하여 공의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⁹⁴⁾.

갈방은 성령의 사역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일반은사의 유익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지식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의 본성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를 바라보기를, 우리의 믿음을 그에게로 향하게 하기를, 그리고 그를 부르며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 속에 신적인 임재를 증명해 주는 훌륭한 재능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몸소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래의 주인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터무니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⁹⁵⁾

2) 성령의 특별 사역

성령의 일반 사역이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과는 반대로, 성령의 특별 사역(구속, 재창조, 새 창조)은 선택(론)의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공동체, 즉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관

92) Inst., I xiii 14.

93) Inst., I xiii 14.

94) Inst., II ii 16.

95) Inst., I v 6.

련된다. 갈뱃은 특별 사역을 행하시는 구속주 성령 하나님은 중생과 믿음과 영생의 창시자로서 인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믿음의 영을 인간에게 준다고 말한다.

썩지 않을 생명으로 중생하는 일이 현세적인 그 어떠한 성장보다 더 고귀하고 훌륭한 것이라면, 과연 그 중생을 능력으로 주도하시는 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서 성령께서 중생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그것도 빌려온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중생을 이루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고, 또한 중생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생을 베푸시는 주체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성자의 경우에도 그렇듯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기능들이 그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의 능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도 그의 역사다.⁹⁶⁾

갈뱃은 성령께서 구속사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시고 당하신 모든 일들이 오늘날 우리 자신들에게와 똑같이 구약의 신자들에게도 해당된다는 확실한 보증을 주신 것이다.⁹⁷⁾

이어서 갈뱃은 “베드로가 증거 하듯이, 우리를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동일한 믿음의 성령이 구약의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것이다(행 15:8).”라고 말한다.⁹⁸⁾ 따라서 우리 기업의 보증되신 성령께서 구속사적으로 구약의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거하신 것이다. 갈뱃은 구속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결의 영과 양자의 영을 줌으로서 하나님을 창조주와 섭리주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⁹⁹⁾

구속주 성령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 8:11) 이처럼 특별 사역을 베푸시는

96) Inst., xiii 14.

97) Inst., II x 23.

98) Inst., II X 23.

99) 임창복·최윤배, 『개혁신학과 기독교교육』(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118쪽.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신다. 주님은 목마른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에게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며(요 7:37),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엡 4:7)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¹⁰⁰⁾.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주어졌다고 칼뱅은 강조한다.

칼뱅은 바울이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구하면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덧붙인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대로 맛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¹⁰¹⁾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었다.”(롬 5:5)는 말씀을 첨가하면서 성령의 특별 역사를 강조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칼뱅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령한 삶의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성부 하나님의 자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온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된다는 것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할 때에 그 큰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해야 된다.”고 강조한다.¹⁰²⁾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또한 그가 베푸시는 모든 은택을 누리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성령의 사역은 우주와 세계와 역사 그리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섭리하시는 일반 사역과, 구속주 성령으로서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세계를 새 창조하시는 성령의 특별 사역으로 나눌 수 있다.

2. 성령과 계시

칼뱅의 성경관은 넓은 의미에서 계시론의 범주 안에서 취급된다. 계시에는 일반(자연)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가지가 있다. 일반 계시는 인간, 역사, 자연, 우주 등 모든 피조물 속에서 나타나며,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다.¹⁰³⁾ 칼뱅에 의하면, 인간은 ‘일반계시’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만을 가질

100) Inst., III i 2.

101) Inst., III i 2.

102) Inst., IV i 3.

103) 임창복·최윤배, 『개혁신학과 기독교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152쪽.

수 있는데, 인간과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핑계할 수 없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신(神)에 대한 지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무지(無知)를 핑계거리로 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신적 위엄을 어느 정도나마 알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사고력을 모든 사람들 속에 심어 놓으셨다. …… 짐승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것 같은 미개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종교의 씨앗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 우상 숭배조차도 이러한 관념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¹⁰⁴⁾

하나님은 아무도 복을 접하는 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미 앞에서 논의한 종교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을 뿐 아니라, 우주의 구조 전체 속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만물들 속에 자신의 영광의 흔적들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새겨놓으셨으므로, 전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조차도 무지를 핑계 삼을 수 없는 것이다.¹⁰⁵⁾

갈뻥은 타락한 인간이라도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일반 계시는 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기술과 과학, 문화 등을 발전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구속주 지식을 갖지 못하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¹⁰⁶⁾ 갈뻥에 의하면,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종교성이나 자연, 우주 등 자연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창조주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은 성령 사역과 연관시킬 때 이신론(理神論)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인간 자신 안에 있는 지성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에 자동적(自動的)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도 성령께서 인간의 지성을 수단으로 사용할 때 인간은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에 지식에 이른다는 것이다.¹⁰⁷⁾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뛰어넘는 특별계시와 우리의 신앙의 눈이 요청된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창조주와 섭리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속주 하나

104) Inst., I iii 1.

105) Inst., I v 5.

106) 최윤배 외 3인,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272쪽.

107) 최윤배, “갈뻥의 경건으로서 영성,” 『개혁교회의 경건론과 국가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편, 2007), 78쪽.

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 역사, 자연, 우주 속에는 창조주 및 섭리주 하나님에 대한 일반 지식이 반영되어 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피조물 속에 계시되어 있는 창조주 및 구속주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 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자, 하나님은 자비하신 행동으로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창조주 및 섭리주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 따라서 갈벱에게 있어서 성경은 창조주 및 섭리주 하나님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외적 수단이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뿐만 아니라, 구속주로도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신자들)은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두 지식에 도달했던 것이다.¹⁰⁸⁾

인간의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창조주 및 섭리주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완전한 창조주 및 섭리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식(二重知識, duplex cognitio Dei)을 성경을 통하여 얻을 수 있게 된다.

인류가 이처럼 황폐해 있는 상태에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서나 구원의 주인으로서나 어떤 식으로든 호감이 가는 분으로 체험하지를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탱시키시고 그의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며 우리에게 온갖 복을 베푸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화목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서로 전연 별개의문제인 것이다. 우주를 지으심에 있어서나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주님은 먼저 자신을 그저 창조주로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참고. 고후4:6) 자신을 구속주로 보여 주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관하여 이중적인 지식이 생겨난다.¹⁰⁹⁾

갈벱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계의 창조주 자신에게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더 나은 도움이 첨가될 필요가 있었다.”¹¹⁰⁾ 그러므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오

108) Inst., I vi 1.

109) Inst., I ii 1.

110) Inst., I vi 1.

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길잡이이며 선생이다. 따라서 갈뱅은 성경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며, 성경은 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이라고 말한다.¹¹¹⁾ 눈이 나쁜 사람이 두 개의 단어 밖에 볼 수 없다가 안경을 사용하면 한편의 책을 다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구속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창조주 및 섭리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지식에 대한 완전한 계시이다. 갈뱅에 의하면, 이 온전한 계시가 바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이며, “하나님께서서는 족장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공적인 기록으로 남기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한다.¹¹²⁾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며,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제자가 되어야만 참된 하나님 지식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경건한 삶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살핌이라고 갈뱅은 주장한다.¹¹³⁾

갈뱅은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마치 흰 물건과 검은 물건이 그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내듯이, 단 것과 쓴 것이 각기 그 맛을 확실히 드러내듯이, 성경도 그것이 진리라는 명확한 증거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¹¹⁴⁾ 갈뱅에게 있어서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전통이나 이성의 비판 또는 증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확립된다. 즉, 성경은 객관적으로 신적 위엄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독자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그 위엄을 믿을 때, 비로소 신적 위엄을 가진다.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자. 하나는 성령이 내적으로 가르친 자들만이 진실로 성령에 의존한다는 사실과 성경은 스스로 권위를 세운다는 사실인데, 이 성경은 증명과 합리적 추리에 의해서 그 권위를 확보할 수 없다.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한 합당한 확신은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얻어진다.¹¹⁵⁾

111) Inst., I vi 1.

112) Inst., I vi 2.

113) 임창복·최윤배, 『개혁신학과 기독교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154쪽.

114) Inst., I vii 2.

115) Inst., I vii 5.

갈뱅에 의하면, 성령께서 내적으로 가르침을 주신 사람들은 진정으로 성경을 신뢰하며, 성경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갖는다. 오직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인 처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진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듯 성령의 능력으로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완전한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갈뱅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갈뱅은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갈뱅은 이처럼 일반 계시를 일반은총 또는 자연은총으로 결부시켜 성령론을 이해했으며, 같은 맥락에서 특별 계시로서 성경도 성령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3. 갈뱅의 경건과 실존적 신앙 경험

갈뱅은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는 로마 가톨릭의 추기경 사도레토(J. Sadoletto, 1477-1457)가 제네바 시민들을 로마 가톨릭 교회로 회유하기 위해 글을 썼을 때, 반박문으로 보낸 편지에서도 “나는 기꺼이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라고 썼다.¹¹⁶⁾ 내성적이며 수줍음을 많이 타는 자연적인 성품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바울의 권면 즉,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함이라.”(고후 4:5)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¹¹⁷⁾

갈뱅은 그의 『시편 주석』(1557)에서 희미하게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신학을 공부시키려고 작정하셨다. 그러나 나중에 법률 직업이 법조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부를 쌓게 한다고 했을 때, 이 기대로 인해 아버지는 자신의 목적을 변경하셨다. 그 결과 나는 철학공부를 그만두고 법학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 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나 자신을 적응시키려고 충성스럽게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의 비밀스런 인도로 마침내 나의 행로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셨다. 그리

116) 최윤배, “갈뱅의 경건으로서 영성,” 『개혁교회의 경건론과 국가론』(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편, 2007), 80쪽.

117) 티모디 조지, 이은선·피영민 역, 『개혁자들의 신학』(서울: 요단 출판사, 2000), 211쪽.

고 처음에 나는 교황의 미신에 너무나도 완고하게 헌신되어 심연이 깊은 늪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런 회심’(subita conversio)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복종시키셨고, 나의 마음에 온순한 틀이 되게 하셨다. 온순한 틀은 그러한 문제들 안에서 나의 초기 생애기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었던 것보다도 더 단단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참된 경건에 대한 어떤 맛과 지식을 얻은 후, 나는 즉시 그 안에서 정진하기 위해 너무나도 강한 소원으로 불붙게 되었다.”¹¹⁸⁾

칼뱅은 참된 경건을 한 번 맛본 것일 뿐인 이 사건을 계기로 법학에서 신학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으며, 회심을 통하여 깊은 경건을 맛본 영적인 체험이 그의 신학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¹¹⁹⁾

칼뱅은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옷소매에 심장을 들고 있는 손이 새겨진 옷을 입었다. 거기에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나이다.”(Cor meum tibi offero Domine)라는 글귀가 있었는데, ‘마음’(Cor)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심장을 의미하는 말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사람 칼뱅의 전존재적인 갈망의 표현이 담겨있다.¹²⁰⁾

또한 칼뱅은 설교 속에서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자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실존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칼뱅에게서 경험은 성경말씀을 뒤따라가고 성경말씀에로 부름 받는 것으로 본다.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을 공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한다.”¹²¹⁾ 칼뱅은 신앙의 신비스러운 경험을 잘 알고 있는데, 성찬에서 경험한 신비스러움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묻는다면, 나는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것이다. 곧, 그것은 너무나도 고귀한 비밀이므로 나의 사고로 파악할 수 없고, 나의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이다. 또한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그런 일은 이해하기보다는 체험하는 것이라 하겠다.¹²²⁾ 그는 하나님과의 신비한 체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118) 최윤배, “칼뱅의 경건으로서 영성,” 『개혁교회의 경건론과 국가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편, 2007), 81-82쪽.

119) 배경식, “칼빈의 법과 제도 안에서의 경건,” 『칼빈연구: 제 3집』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314쪽.

120) 김남준, “왜 칼빈의 영성은 리바이벌되지 않는가,” 122쪽.

121) 최윤배, “칼뱅의 경건으로서 영성,” 『개혁교회의 경건론과 국가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편, 2007), 82쪽.

122) Inst., IV xvii 32.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 본다. 갈뱅은 성령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게 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한다고 말한다.¹²³⁾ 따라서 갈뱅의 실존적 신앙 경험은, 경건주의 운동이나 신비주의에서 나타나는 주관주의적인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과 성경 말씀을 통한 실존적, 전인격적 신앙 경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의 신학적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린 생생하고도 체험적인 지식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IV. 갈뱅의 경건의 통전성

갈뱅에게는 ‘영성’ 보다 ‘경건’이란 말이 더 익숙한데, 개혁신교회 전통과 개혁파 종교 개혁자들이 ‘영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경건’이다.¹²⁴⁾ 특히, 마르틴 부처(M. Bucer)에게서 경건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는 참된 경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웃에 대한 사랑 안에 있다.”고 말한다.¹²⁵⁾ 부처에게서 경건은 ‘신앙’과 ‘사랑’이 양극적으로 동시에 결합된 개념이다. 즉, 신앙과 사랑을 한 동전의 앞면과 뒷면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성령의 은사로서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는 동시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¹²⁶⁾

최태영은 갈뱅의 영성을 ‘경건으로서의 영성’으로 파악했다. 그는 갈뱅의 경건은 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만, 이웃과 세상과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갈뱅의 경건 개념은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¹²⁷⁾

123) 정승훈, 『종교개혁과 칼빈의 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5쪽.

124) H L, Rice, *Reformed Spirituality*, 황성철 역, 『개혁주의 영성』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58쪽.

125) 최윤배, “갈뱅의 경건으로서 영성,” 『개혁교회의 경건론과 국가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편, 2007), 85쪽.

126) 최윤배, “마르틴 부처의 경건의 개념,” 『로고스 제39호』, 88쪽.

127) 최태영, “칼빈의 신학과 영성,” 『조직신학논총: 제7집』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2), 32-33쪽.

이수영은 깔뱅의 경건을 하나님과 관계된 수직적인 축과, 이웃과 관계된 수평적인 축으로 이해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인간을 향한 의와 사랑은 결코 나뉠 수 없다는 것이다.¹²⁸⁾

최윤배도 깔뱅의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이웃 사랑이 주요 내용이며,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경외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에 경건의 핵심은 하나님 경외에 있다고 말한다.¹²⁹⁾

이처럼 깔뱅의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외와 사랑과 신앙에 뿌리를 두면서도, 이웃을 향한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직적인 측면과, 삶의 모든 영역인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생태와 자연 등 수평적인 측면을 통해서 깔뱅의 균형잡힌 경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을 “깔뱅의 경건의 통전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깔뱅의 경건이 한편에서는 수직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윤리적으로만 접근하여 깔뱅의 경건의 수직적 측면이 간과되기도 하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깔뱅의 통전적인 경건에 나타나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A.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unio mystica)

깔뱅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신비한 연합’이라고 표현한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의 유익에도 참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고 분리되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당하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고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 되시고 또한 우리 속에 거하실 때 비로소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축복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실 수 있게 된다.”¹³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128) 이수영, “경건과 영성 신학,” 『개혁신학과 경건』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6), 283쪽.

129) 최윤배, “깔뱅신학에 나타난 지식과 경건의 관계성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M.Div., 1987), 1쪽.

130) Inst., III i 1.

모든 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택을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과 효과적으로 연합시키시는 끈이시다.”¹³¹⁾

스뵘이꺼(W. van 't Spijker)는 ‘신비한 연합’이 갈뱅과 개혁신학 영성의 특징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갈뱅의 ‘신비한 연합’과 신비주의에서 이해하는 신비한 연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신비주의에서 이해하는 신비한 연합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방법으로, 자기 홀로 도취되거나 황홀경에 빠져 윤리의식이 거의 없는 문제점을 가진다면, 갈뱅의 신비스런 연합은 성령과 신앙을 통한 연합이며, 자신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강한 윤리적 책임으로 부름을 받는 연합이다.¹³²⁾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 영생에 대한 희망,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의로움과 경건을 위한 영적인 노력 등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성화라는 삶의 과정을 통해 영적인 노력과 진보로 나타나는데,¹³³⁾ 이는 단순히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영성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 따라서 갈뱅의 경건은 사회정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앙드레 빌레(A. Bieler)는 갈뱅의 신비한 연합은 개인적, 교회론 즉 성례의 삶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정치, 사회적 봉사(political, social diakonia)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¹³⁴⁾

갈뱅에게 있어서 신비한 연합이란 형이상학적 사변 또는 개인주의적 신비주의가 아니라, 인간 전체의 삶의 변화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화의 진보적인 삶과, 이 세상을 향한 윤리적 실천으로 귀결된다.

B. 중간의 길(via media)을 통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

131) Inst., III i 1.

132) 최윤배, “갈뱅의 경건으로서 영성,” 『개혁교회의 경건론과 국가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편, 2007), 93쪽.

133) 정승훈, 『종교개혁과 칼빈의 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70쪽.

134) 위의 책, 71쪽.

칼뱅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을 중심으로 한 재세례파와 로마 가톨릭 교회와 논쟁을 벌였다. 재세례파는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의 직제를 무시하고, 열광주의적인 과격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했으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령을 약화시키면서 교회의 직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칼뱅은 전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구와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후자에게는 영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칼뱅은 이 양극단적인 진영 사이에 ‘중간의 길’을 제시해 주었다.¹³⁵⁾

부처(Martin Bucer)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옛 계약(언약), 즉 구속사적인 틀 안에서 이해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버리지 않고,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선택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이방인들이 제한적으로 참여하였지만, 점점 더 넓어져서 모든 민족들을 향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도들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미리 보셨다. 부처는 아브라함의 참 씨이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장될 하나님나라를 선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¹³⁶⁾

칼뱅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도움의 수단들을 사용하신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초대하시고 그 안에 거하도록 하는 외적 수단들을 사용하신다.”고 말한다.¹³⁷⁾ 그에 의하면, 말씀과 성례전이 성령의 사용하시는 구원의 수단(media salutis)이 된다.

칼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 되었고, 구원과 영원한 복락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무지와 태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도움들’이 필요하였다. 칼뱅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외적 수단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 바

135) 최윤배·방선영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 『칼빈연구: 제 3집』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142쪽.

136) 최윤배, “마르틴 부처의 종교개혁과 선교- 하나님나라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제 21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8), 91-92.

137) Inst., IV i 1.

로 교회와 국가라는 것이다.¹³⁸⁾ 깔뱅에 의하면, 왕이신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의 수단들을 통해서 다스리신다. 또한 왕이신 그리스도 밑에는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는데, 교회의 목회자와 국가 통치권자들이다. 그에게서 정부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건설을 위한 공간이다.¹³⁹⁾

깔뱅은 교회와 국가를 분명하게 구별하지만, 상호 분리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의 가르침의 계획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교회와 교회의 통치, 질서, 권세에 대해서 논하고 그 다음에 성례전, 마지막으로 시민 질서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기술함으로서 교회론을 국가론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다루고 있다.

깔뱅에게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의 모임이며,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 교회는 구원의 수단인 말씀 선포와 성례전이 있고, 직제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거행하는 목사,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 치리를 수행하는 장로, 재정을 돌보는 집사가 있다.

교회는 독립적이며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과 무관하지 않다. 즉,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의 올바른 집행을 통해 참된 교회의 표식이 나타나는데, 특히 성만찬의 나눔의 신비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영성을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가난한 자들과의 연대와 나눔이라는 사회 윤리적 귀결을 포함한다.¹⁴⁰⁾ 따라서 깔뱅에게 있어서 정치 사회적 문제는 교회와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영역이 아닌, 그리스도의 지배에 속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고찰된다.

깔뱅은 국가의 통치 목적은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 보호되고 건전한 교리와 지위가 수호되어 인간을 사회생활에 적응시키며, 인간의 행위를 사회정의와 일치하도록 인도함으로서 인간이 서로 화해하게 되며, 전반적인 평화와 평온을 증진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라고 말한다.¹⁴¹⁾ 따라서 국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경건을 돌보며 예배를 육성하는 책임이 있다.

138) Inst., IV i 1.

139) 최윤배, “바람직한 기독교 가정,” 대한 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편),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297쪽.

140) 정승훈, 『종교개혁과 칼빈의 영성』(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60쪽.

141) Inst., IV xx 2.

칼뱅은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가정, 문화, 자연, 생태, 세계 등 모든 곳에서 사랑과 봉사의 영성, 즉 청지기 영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칼뱅에게서 기독교 가정은 신앙과 사랑 그리고 책임 속에서 서로 섬기는 가족 관계가 기초를 이루어야 한다.¹⁴²⁾ 칼뱅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복되고, 행복하며 평화스럽게 살도록 많은 기관들을 주셨는데, 이 기관들 중의 하나가 가정이다.¹⁴³⁾ 칼뱅은 일반가정은 창조질서에 속해 있지만, 기독교 가정은 창조질서뿐만 아니라 구속질서에 속한 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인 동시에 신앙의 공동체로 본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사이에 상호 의무가 항상 전제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봉사)으로 서로를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다.¹⁴⁴⁾

칼뱅은 인간의 노동을 신성시했으며, 자연과 생명, 생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칼뱅은 인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자직과 청지기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칼뱅은 기술, 과학, 예술 등 인간에게 유익한 모든 것은 성령의 일반은사로서 그 가치를 강조했다.

이 땅에 것들에는 정치, 경제, 모든 기계적인 기술들, 그리고 예술 등이 포함된다.¹⁴⁵⁾

칼뱅은 재화를 포함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은사들은 자신과 이웃,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선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정하신 목적에 따라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바른 사용이라는 것이다.

노영상은 교회와 국가를 비롯하여 피조세계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칼뱅의 통전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42) 최윤배, “바람직한 기독교 가정,” 대한 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편),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307쪽.

143) 최윤배, “칼빈의 가정론,” 『목회와 신학: 통권 227호』 (서울: 두란노, 2008), 164쪽.

144) 위의 책, 169쪽.

145) Inst., II ii 13.

칼뱅은 거룩함과 도덕을 사회질서에도 통합시키고자 하였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서의 영성을 개인뿐만 아니라 세계 내에서의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질서의 새로운 회복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의 영성이 사적 종교와 공적 종교, 개인의 변화와 공동체의 변화, 그리고 내면성과 외면성이 서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 칼뱅의 신비적 연합은 종말론과 결부된다. ...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은 개인의 윤리적인 삶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그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 세상과 하나됨으로써, 우리에게 사회적 책임을 유발한다는 것이 칼뱅의 주요한 논점이다.¹⁴⁶⁾

칼뱅의 경건은 성례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새 생명의 기쁨과 변화를 가져온다. 그에게 있어서 경건이란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포함하는 경건이며 나아가서는 우주적인 신적 주권을 선포하는 창조질서의 회복을 포함한다. 이처럼 칼뱅에게 있어서 경건은 전인적인 모습의 경건으로, 이웃과 자연에 대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경외함이 경건의 주제였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칼뱅의 경건은 통전적인 의미를 지닌 온전한 경건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V. 칼뱅의 신학에 나타난 경건

칼뱅의 신학 사상의 주제는 경건이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학이라면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한다.¹⁴⁷⁾ 그러므로 칼뱅에게 있어서 경건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참으로 알지 못하고는 참된 경건이 일어날 수 없고 참으로 경건한 자세로 접근하지 않고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신학이다.”¹⁴⁸⁾ 따라서 칼뱅에게는 경건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홀트롭은 “『기독교 강요』는 교리와 삶, 신학과 경건을 통합한 책”이라고 말한다.¹⁴⁹⁾ 칼뱅의 글들의 주요 주제는 경건과 깊은 관련 속에

146) 노영상, “칼뱅 신학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와 연합’과 ‘성화론’ 사이의 관계,” 『장신논단: 제22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원 2004), 194쪽.

147) 최태영, “칼빈의 신학과 영성,” 『조직신학논총: 제7집』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2), 33쪽.

148) 김이태, “칼빈신학에 있어서 경건과 학문의 상관성 연구,” 『교회와 신학: 제12집』 (1980), 42쪽.

서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갈뎡의 신학에서 나타난 중요한 주제들과 경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 경건과 신지식

갈뎡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앙이나 경건이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¹⁵⁰⁾

갈뎡에 의하면,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필수 조건이 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경건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므로, 경건과 신지식은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 경건과 신지식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 있다. 갈뎡은 베드로후서 1:3절의 주석을 통해서 지식 없는 경건이란 처음부터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지식은 생명의 기초이며, 경건의 첫 입구이다. 영적인 은사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복음의 가르침에 의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비추임을 받기까지는 구원을 위해 아무런 소용이 없다.¹⁵¹⁾

갈뎡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과연 우리에게도 어울리며 하나님의 영광에도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한다.¹⁵²⁾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인격적인 앎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룩한 경건 없이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기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갈뎡의 신지식은 경건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

149) Philip C. Holtrop, 박희석·이길상 역, 『기독교 강요 연구 핸드북』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5), 13쪽.

150) Inst., I ii 1.

151) 『베드로 후서 주석』, 1:3.

152) Inst., I ii 1.

고 핵심적인 말이다.

갈뱅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으면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를 가르쳐야 하며, 다음으로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가르치며 구한 것을 받았으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해야 한다.¹⁵³⁾

이와 같이 경외와 사랑에 찬 경건한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의 저작자라고 인식하는 까닭에 그 무엇이 억압하든지 혹은 그 무엇이 결핍할 경우 이 경건의 신앙을 지닌 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자 하며 이 분에게서 도움을 기다린다. 이러한 신앙인은 하나님은 좋으시며 자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역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제의 길이 열릴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이처럼 경건한 신앙인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주님과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매사에 있어서 그의 권위를 높이고 그의 위엄 앞에 경외를 느끼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힘쓰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합당하고 옳다.¹⁵⁴⁾

그러므로 경건에 찬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숭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순결하고 순전한 신앙이란 바로 이것이니,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진지한 두려움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기꺼운 공경심이 나타나고 또한 율법이 제시하는 정당한 예배가 생겨나는 그런 것이다.¹⁵⁵⁾

갈뱅은 이처럼 경험과 실천을 통한 신 인식의 방법을 열어놓았다. 갈뱅은 즈네브 요리문답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밝힌다.¹⁵⁶⁾ 즉 그 분을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그 무엇보다도 존경하며 모든 두려움과 사랑 그리고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갈뱅은 올바른 신 인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153) Inst., I ii 2.

154) Inst., I ii 2.

155) Inst., I ii 2.

156) John. Calvin, *Les Catéchismes De L'Église de Genève*, 한인수 역, 『갈뱅의 요리문답』 (서울: 도서출판 경건, 1995), 25쪽

경건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신을 아무렇게나 꿈꾸지 않고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성격을 아무렇게나 그 신에게 같다 붙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붙잡는 것으로 만족한다. 또한 더 나아가서 경건한 사람은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혹은 분별없이 경솔하게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조심하는 것이다.¹⁵⁷⁾

경건은 어떤 종류의 신(神)도 찾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경건에 이르는 길이 된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는 첫 단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셔서 그의 나라를 얻기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다스리시고, 기르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¹⁵⁸⁾

이처럼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하고, 경건이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갈뱅에게 있어서 ‘경건(pietas)와 학문(scientia)’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¹⁵⁹⁾

갈뱅의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관계되어 있다. 그러나 갈뱅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인간을 향한 의와 사랑을 서로 나누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두 서판이 서로 구별되지만, 결코 나뉘지 않는 것처럼 경건과 사랑은 서로 긴밀한 연속성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¹⁶⁰⁾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여기서 먼저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며, 또한 그것으로부터 사랑이 나오는 것이다.¹⁶¹⁾

이처럼 갈뱅의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이웃 사랑이 중심을 이룬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발현된다는 것이 갈뱅의 주장이다.

157) Inst., I ii 2.

158) Inst., II vi 4.

159) 최태영, “칼빈의 신학과 영성,” 『조직신학논총: 제7집』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2), 34쪽.

160) 이수영, “경건론,” 『칼빈 신학해설』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8), 283쪽.

161) Inst., II viii 51.

거룩성의 완성은 이미 언급했듯이 두 부분에 달렸다. 즉,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신6:5)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22:37,39)이다. 첫째로 우리의 전 영혼이 사랑으로 충만하여야 이로부터 이웃사랑이 흘러나온다.¹⁶²⁾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중지하지 않고는 주님의 뜻을 따라 진실하게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¹⁶³⁾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선한 양심과 믿음, 즉 한 마디로 말해서 경건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머리처럼 위에 놓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사랑이 연유하는가를 본다.¹⁶⁴⁾

경건의 표현인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증거 된다. 깔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경건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날 때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깔뱅은 참된 경건은 인간을 향한 의와 사랑의 봉사라고 나아간다는 것을 강조한다.¹⁶⁵⁾

왜냐하면 우리가 친절과 정직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우리의 경건이 사람들을 향해 나타나야하기 때문이다. 자선이라는 낱말은 본래 자비, 즉 마음의 내적인 감정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외향적인 봉사로 바뀌어 진 것이다.¹⁶⁶⁾

그러므로 사람을 향한 사랑은 참된 경건에서부터 오는 것이며, 참된 경건은

162) Inst., II viii 51.

163) Inst., II viii 53.

164) Inst., II viii 51.

165) 이수영, “경건론,” 『칼빈신학 해설』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8), 284쪽.

166) 『사도행전 주석』, 10:2.

인간을 향한 사랑과 봉사로 나아갈 때 온전한 경건에 이르게 된다.

우선 도덕에 관한 율법을 본다면 거기에는 두 부분이 있다. 한 부분은 순수한 믿음과 도덕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 또 한 부분은 진실과 애정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한다. 따라서 도덕에 관한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을 정돈하고자 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전해 주신 의의 표준 곧 참되고 영원한 표준이다.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뜻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⁶⁷⁾

이처럼 갈뱅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건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뻗어나가는 것임을 강조한다.

B. 경건과 예배

갈뱅의 경건 이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예배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와 복종이 꽃으로 피어나고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따라서 예배는 경건 생활의 꽃이며, 경건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고 증명된다.¹⁶⁸⁾ 갈뱅은 경건과 예배가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순결하고 순전한 신앙이란 이것이니,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진지한 두려움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기꺼운 공경심이 나타나고 또한 율법이 제시하는 정당한 예배가 생겨나는 그런 것이다.¹⁶⁹⁾

이 계명의 핵심은 참된 경건- 즉, 하나님의 신성을 경배하는 것- 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한 불 경건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데 있다.¹⁷⁰⁾

167) Inst., IV xx 15.

168) 이수영, “경건과 영성 신학,” 『개혁신학과 경건』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74쪽.

169) Inst., I ii 2.

170) Inst., II viii 8.

갈뱅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두려움이 하나가 될 때 율법이 제시하는 순결하고 순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고 보았다. 따라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예배는 경건과 떼어 낼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다. 이처럼 갈뱅은 경건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둔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갈뱅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배를 왜곡시키는 가장 사악한 죄는 우상숭배이다. 인간이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마음으로 엮드리는 순간 우상숭배가 된다. 이것은 경건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갈뱅에게는 우상숭배로 왜곡된 예배를 바로 세우는 일이 경건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따라서 갈뱅은 어떤 형태의 우상숭배든지 절대적으로 반대했으며, 우상숭배를 뿌리 뽑는 것을 진정한 사명으로 알고 하나의 원칙을 세웠다.

성경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거듭거듭 단언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언제나 그저 이름만을 거론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것은 절대로 다른 것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참된 신앙이 미신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하는 것도 분명히 드러난다.¹⁷¹⁾

갈뱅은 신성에 속한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한정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귀가 박탈당하고 그에게 드리는 예배가 더럽혀질 것을 염려했다. 탈리히는 갈뱅 신학의 핵심을 반 우상숭배에 두었다. 갈뱅은 우상숭배를 굉장히 강력하게 다루었는데, 그는 우상들이라고 보여 지면 어느 곳에서나 우상들과 싸움을 했다고 말한다.¹⁷²⁾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만이 미신에 대항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찬양을 다른 대상에게로 옮기는 것이 가장 나쁜 죄가 된다. 그러므로 갈뱅에게서 미신과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예배에 정면으로 반대된다. 갈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이 있을 때 미신과 우상숭배는 제거되며 올바르게 세워진 경건 속에서 우리가 참된

171) Inst., I xii 1.

172) 강경립, “칼빈의 반우상숭배론,” 『칼빈 신학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107쪽.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예배는 영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신다. “갈뱅에게 있어서 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바른 태도, 진정한 지식과 진정한 예배를 포함한, 예배의 진정한 태도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이다.”¹⁷³⁾ 따라서 영적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오직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가능하다.

너희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예배하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은 기억해야 할 가치가 있는 문장이며, 종교에서는 성급하게 또는 멋대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왜냐하면 지식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율령이며 우상이기 때문이다.¹⁷⁴⁾

갈뱅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진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참된 예배에로 인도한다고 말한다.¹⁷⁵⁾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라는 참된 경건에 도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존귀하신 모습 그대로를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갈뱅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경건만이 진실하고 참된 예배로 나타난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예배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였다.

C. 경건과 기도

기도는 갈뱅의 경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갈뱅은 경건과 기도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입증한다.

경건은 인간을 향한 선한 양심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뿐만 아니라 신앙과 기도를 포함한다.¹⁷⁶⁾

갈뱅에게서 기도는 『기독교 강요』 제 3권 20장 전체에 나타난다. 갈뱅의 기

173) L. Joseph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101-02쪽.

174) 『요한복음 주석』, 4:22.

175) Inst., I ii 1.

176) 『디모데전서 주석』, 4:8.

도는 제일 먼저 신앙과 기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것이 깔뱅의 기도의 특징이다. 즉, 『기독교 강요』 20장 전체 제목인 “기도에 관해서: 기도는 신앙의 주된 훈련이며, 이로써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들을 얻는다.”는 신앙과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깔뱅은 기도를 신앙의 열매로 보았다.¹⁷⁷⁾ “신앙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각 기도로 번지며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잡아 누리도록 거기에 손을 뻗게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신앙에 기도를 덧붙이고 있다.”¹⁷⁸⁾고 말함으로써 신앙에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 깔뱅의 주장이다.

깔뱅에 의하면 인간은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인간만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찾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자신의 이름으로 열어 놓으셨다.¹⁷⁹⁾

그러므로 사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말하고 있다. 곧, 믿음이 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된다는 것이다(롬 10:14-17).¹⁸⁰⁾

깔뱅은 기도로 구하는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한다. “곧 복음의 증거를 우리 마음에 인 치시는 ‘양자의 영’께서 우리의 필요한 사항들을 하나님께 아뢰 용기를 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다.¹⁸¹⁾

깔뱅에게서 ‘기도’란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온갖 풍성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보화들을 파낼 수 있다.¹⁸²⁾

177) 추연욱, “칼빈의 기도론,” 『칼빈연구: 제5집』 (서울:한국장로교 출판사, 2008), 266쪽.

178) 『마태복음 주석』, 21:21

179) 김재성, “기도론과 교회의 회복,” 『칼빈 신학과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65쪽.

180) Inst., III xx 1.

181) Inst., III xx 1.

갈뱅은 우리에게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강조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이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갈뱅에게서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즉,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며, 죄악 속에서 건져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갈뱅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도록 간구하는 이 모든 일이 기도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¹⁸³⁾

갈뱅에 의하면 기도의 결과는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과 안정을 허락해 준다. 따라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간절하고 열심히 기도하게 된다. 갈뱅은 때때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배려라고 보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청해서 큰 유익을 얻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¹⁸⁴⁾

사람이 바라거나 유용하다고 느끼며, 그래서 얻기를 구하는 온갖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뜻이다.¹⁸⁵⁾

기도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요구한다.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¹⁸⁶⁾ 갈뱅에 의하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도와주신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심화시켜 준다.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기대로 바꾸어 주며, 기도한 것은

182) Inst., III xx 2.

183) Inst., III xx 2.

184) 장훈태, “칼빈의 기도론,” 『칼빈신학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307쪽.

185) Inst., III xx 3.

186) Howard L. Rice, *Reformed Spirituality*, 황성철 역, 『개혁주의 영성』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104쪽.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칼뱅은 기도의 무용론(無用論)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필요성을 가르쳤다. 첫째,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구해야 한다. 둘째, 진정으로 기도하려면 회개해야 한다. 셋째, 기도의 전체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⁸⁷⁾ 칼뱅은 올바른 기도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도록 가르치려는 것으로, 단순한 교리 설명이 아니라 실천적인 기도생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¹⁸⁸⁾

칼뱅에게 있어서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리는 것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다. 따라서 칼뱅의 기도는 경건을 증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칼뱅은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하며 고정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칼뱅은 규칙적인 기도 시간의 필요성을 매우 분명하게 표현한다.

기도 시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훈련시키고 계속해서 자극시키기 위한 하나의 훈련으로 여겨서 그렇게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¹⁸⁹⁾

즉,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해서 정해놓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그 시간이 되면 반드시 기도하고 온전히 기도에만 전념할 것을 강조한다.¹⁹⁰⁾

칼뱅은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으므로 우리의 전 생활은 경건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⁹¹⁾ 칼뱅에게 있어서 기도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성화의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187) Inst., III xx 6-9.

188) 추연욱, “칼빈의 기도론,” 『칼빈연구: 제5집』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8), 275쪽.

189) Inst., xx 50.

190) L. Joseph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121쪽.

191) Inst., III xix 2.

다.¹⁹²⁾

경건한 삶의 연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다. 갈뱁은 하나님은 선한 삶과 기도로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촉진시킨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우리는 덕과 선행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고맙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도 더 위대한 은사를 쌓아 주시고 풍요하게 해 주신다는 결론을 얻는다.¹⁹³⁾

갈뱁에게 있어서 기도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 따라서 참된 경건의 실천이 있는 곳에서 믿음이 자라며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D. 경건과 창조 및 섭리

갈뱁의 창조 교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명상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경건에 이르게 한다.¹⁹⁴⁾ 갈뱁은 하나님의 사역인 창조 세계를 보면서 “만물이 하나님의 숨쉬와 권능으로 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¹⁹⁵⁾ 창조 자체보다는 그것이 경건을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갈뱁에게 있어서 “이 우주의 정교한 질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명상할 수 있는 일종의 거울이다.”¹⁹⁶⁾

갈뱁은 『기독교 강요』 14장에서 이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강조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조 기사를 작성케 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사실을 그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 주신 것은, 그의 백성들이 무익

192) 장훈태, “칼빈의 기도론,” 『칼빈 신학 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314쪽.

193) Inst., III xx 50.

194) 이양호, “칼빈의 영성,” 『기독교 사상: 통권 제 419호』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3), 227쪽.

195) Inst., I xiv 22.

196) Inst., I v 1.

한 논란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¹⁹⁷⁾

갈뱅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보았다.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항상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을 운영하는 일이 그의 손과 권능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¹⁹⁸⁾

갈뱅은 창조 기사(창1-2)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솜씨를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영의 능력으로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온갖 종류의 생물과 무생물을 지으셨고, 많은 사물들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하셨으며, 각 종류마다 자체의 본질과 기능을 부여하시고, 장소와 위치를 지정하셨으며 …… 마지막 날까지 각 종류들을 보존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 은밀한 방식으로 만물들을 양육하시되, 이따금씩 그것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에게는 번식력을 베풀어 주셔서 한 개체가 죽어도 그 종(種) 전체가 말살되지 않도록 하셨고, 또한 풍성함과 다양함과 아름다움이 무제한으로 드러나도록 천지를 놀랍게 장식하셔서 마치 웅대하고 찬란한 저택처럼 만드셨고 거기에 지극히 정교하고 풍부한 장식물들로 채우셨다는 사실도 배우게 된다.¹⁹⁹⁾

이어서 갈뱅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아름답게 위치시키고 정리 정돈하셔서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셨고, 낮과 밤, 달과 해와 계절, 그리고 낮의 길이를 잘 조절하셔서 혼란이 없도록 만드신.”²⁰⁰⁾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한다.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의 사건이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²⁰¹⁾

그러므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권능으로 창조하신 위대한 역사는 어떤 찬란한 말로도 표현하기에 부족하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데 바로 거기에 예배와 경건의 핵심이 담겨있다.

갈뱅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탁월한 존재이다.

197) Inst., I xiv 20.

198) Inst., I xiv 22.

199) Inst., I xiv 20.

200) Inst., I xiv 21.

201) 이오갑, “칼빈의 창조론,” 『칼빈연구: 제 4집』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7), 57쪽.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그의 공의와 지혜와 선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고귀하고도 탁월한 모범이다.²⁰²⁾

인간은 다른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선의 탁월한 표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이나 땅, 그리고 모든 동물들에게는 조금밖에 주지 않은 것을 인간에게는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다.²⁰³⁾ 갈뱅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된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부여하셨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창세기 1:26-28 말씀이 증명하고 있는데, 인간은 모든 살아 있는 피조물들에 대한 권위를 가져야 한다. 특별히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땅을 잘 경작해야 한다는 뜻이며, 인간은 청지기로서 피조물을 잘 보존하고 양육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²⁰⁴⁾ 갈뱅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

갈뱅은 창세기 1장의 6일간의 창조를 지지하고 강조한다. 즉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옛세 동안 나누어 진행하셨다. 그 이유는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을 미리 아시고 예비해 놓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아버지다우신 배려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다.”²⁰⁵⁾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심지어 엄청난 정도로 풍부한 부(富)를 갖춘 세계를 준비시키셨다. 따라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부유하고 호사스러운 가정의 아버지와 같다.²⁰⁶⁾

갈뱅에게서 창조 세계는 가장 아름다운 극장이다. 그러므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경건한 즐거움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하여 창조하신 목적을 경건하게 묵상하여야 한다.

갈뱅의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신앙고백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에게로 이어지지 않으

202) Inst., I xv 1.

203) 이오갑, “칼빈의 창조론,” 『칼빈연구: 제 4집』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7), 83쪽.

204) 임창복·최윤배, 『개혁신학과 기독교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34쪽.

205) Inst., I xiv 22.

206) 이오갑, “칼빈의 창조론,” 『칼빈연구: 제 4집』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7), 56쪽.

면,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파악하고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창조주’시더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한다.²⁰⁷⁾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심과 영원하신 통치자시요 보존자이심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체의 틀과 그 각 부분들을 운행하실 뿐 아니라, 심지어 작은 참새 한 마리까지 그가 지으신 모든 것들을 지탱시키시고, 양육하시고 보살피시는 분으로 인정해야 한다.²⁰⁸⁾

갈뱅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믿지 못하면, 그가 인간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납득하지 않으면 우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²⁰⁹⁾ 따라서 갈뱅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무로부터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섭리주 하나님으로 이해한다.

섭리란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한가하게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열쇠를 쥐고 계신 분으로서, 모든 사건을 지배하신다는 뜻이다.²¹⁰⁾

그러므로, 모든 일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발생된다.

경건한 자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그의 권세로 붙잡고 계시고,

207) Inst., I xvi 1.

208) Inst., I xvi 1.

209) Inst., I xvi 1.

210) Inst., I xvii 4.

그의 권위와 뜻으로 다스리시며, 그의 지혜로 주관하시므로 그의 결정이 없이는 아무일도 일어 날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위로가 되는 것이다.²¹¹⁾

칼뱅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 생기는 것은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숨은 섭리에 의해서 발생한다. 사람이 도둑을 만나거나, 망망대해에서 배가 좌초당했을 때, 혹은 사막을 헤매다가 구조를 받거나, 파도에 휩쓸리다가 기적적으로 항구로 돌아오게 됐을 때, 육적인 생각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운명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마10:30)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에 따라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한다.²¹²⁾ 또한 역경에 처할 때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얻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번영할 때 마음의 감사와, 역경 중에 인내를, 또한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의 놀라운 해방을 체험하게 된다.²¹³⁾

바우스마(William J. Bouwsma)는 칼뱅의 섭리는 적극적인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이해 할 수 있다고 본다. 바우스마에 따르면, 칼뱅은 섭리를 하나님의 힘으로 표현하는데, 그 힘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효과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섭리는 세상, 특히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활동으로 보여준다. 그는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의 힘으로 세상을 지탱하며,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주장한다.²¹⁴⁾

칼뱅에게서 섭리의 의미가 가장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이의 출생과 양육 같은 특별한 정서적인 사건들과 연관시킬 때이다.

그러한 사건들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밝게 빛난다. 이러한 기적은 그것의 평

211) Inst., I xvi 11.

212) 이양호, “섭리론,” 『칼빈 신학 해설』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8), 199쪽.

213) Inst., I xvi 2.

214) William J. Bouwsma, “존 칼빈의 영성,” 『신학사상: 제 99집』 (1977), 146쪽.

범성 때문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배은망덕한 마음이 우리의 눈을 우둔함으로 가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탄복하면서 기뻐 날뛴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은밀하고 무한한 힘으로 그 아기를 자궁 속에서 살려 주지 않는다면, 그가 태어나는 순간이 다가오기까지 어찌면 수백 번 일어날 수도 있는 죽음의 위기로부터 무엇이 그 아기를 보호해 주겠는가? 그리고 그가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그는 수많은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고, 자신을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음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그를 아버지 같은 품안에 안아서 기르고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가 하루인들 살 수 있겠는가?²¹⁵⁾

따라서 섭리는 하나님의 힘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준다.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경건한 사람에게 비추면, 그를 짓누르던 불안과 두려움은 물론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게 된다.²¹⁶⁾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큰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기쁨과 벽찬 확신이 생긴다. “여호와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시118:6),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시23:4),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찬송 하리이다.”(시71:14) 갈렙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할 때 두 가지 유익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

첫째로, 천지를 소유하시며 또한 모든 피조물들이 그 명령에 스스로 완전히 복종하는 그 하나님께 선을 행하시기에 충족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며, 둘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안전하게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²¹⁷⁾

갈렙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무지한 것이 가장 큰 비참함이며, 또한 최고의 행복은 바로 그 섭리를 아는데 있다고 강조한다.²¹⁸⁾

215) 『시편주석』, 22:10.

216) Inst., I xvii 11.

217) Inst., I xvii 3.

218) Inst., I xvii 11.

갈뱅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끼치는 해악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요셉이 형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며 오히려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풍성하게 얻었기 때문이다.²¹⁹⁾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을 때에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

그러나 갈뱅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악한 행동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한다.²²⁰⁾ 도둑질, 간음이나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섭리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자기의 악한 성향과 악한 욕망에만 복종해서 악한 행동을 저지른 사람은 범죄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문제와 죄책은 분명 악한 사람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갈뱅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들을 수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들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크고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악한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행하시는 법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²²¹⁾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통해서 심판과 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

갈뱅은 하나님의 섭리로 경건한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운 사랑을 베푸시며, 악인과 범죄자에게는 엄하게 대하신다.²²²⁾ 뿐만 아니라, 갈뱅에게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부성애보다 더 큰 사랑으로 죄인들의 사악함을 깨뜨리시는 공흠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²²³⁾

갈뱅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섭리주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 그리고 확신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명상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섭리에 대한 거룩한 묵상은 우리의 유익한 길, 즉 경건의 길로 인도한다.

219) 이양호, “섭리론,” 『칼빈 신학 해설』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8), 191쪽.

220) Inst., I xvii 5.

221) Inst., I xvii 5.

222) Inst., I v 7.

223) Inst., I v 7.

E. 경건과 예정

예정이란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²²⁴⁾ 갈뱅의 예정 교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

이 영원한 선택을 알게 되기 전에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는 공훈의 우물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합당한 만큼 절대로 분명하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²²⁵⁾

갈뱅의 예정론이 특이한 것은 신문이나 기독교론에서 다루지 않고, 구원론에서 다룬다는 점이다.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에서 예정론을 신문에서 다루지만, 갈뱅은 예정론을 추상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구원의 감격 및 경험,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말씀의 효력, 그리고 성령의 현재적 활동과 관련시켜 실존적으로 접근함으로 그의 예정론은 좁게는 구원론에, 넓게는 교회론과 성령론에 위치한다.²²⁶⁾

갈뱅은 예정교리가 주는 세 가지 유익과 함께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한다. 첫째,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며, 둘째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며, 셋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확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유익이 있다.²²⁷⁾

그러므로 예정교리는 올바른 겸손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진지하게 느끼게 하는 것으로, 경건을 강조하는 교리임을 알 수 있다.²²⁸⁾ 갈뱅에 의하면, 사도들과 교부들의 뒤를 잇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루며, 동시에 신자들을 경건생활의 훈련 밑에 붙들어 놓기 위

224) 존 H. 리스, 황승룡·이용원 역, 『개혁교회와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107쪽.

225) Inst., xxi 1.

226) 임창복·최윤배, 『개혁신학과 기독교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252쪽.

227) 위의 책, 252쪽.

228) 최태영, “칼빈의 신학과 영성,” 『조직신학논총: 제7집』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2), 36쪽.

해서 예정 교리를 다루어야 한다. 예정교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경외하는 마음과, 신자들이 경건생활의 훈련을 잘 감당하는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 즉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기 위해서 경건을 선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예정을 선포해야 한다.²²⁹⁾

갈방은 예정이 성경에 근거한 것으로, 예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불경한 경솔함으로 하나님의 그 깨달을 수 없는 비밀한 것들을 찾아 나서도록 담대한 마음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로 예정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떨며 그의 긍휼하심에 대해 존귀히 높이기를 배우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²³⁰⁾

그러므로 성경이 예정에 대해서 말하는 목적은 바로 경건에 있다. 갈방은 예정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히 있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에 관하여 합당하게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사실들을 탐구해 가도록 이끌어 주는 유일한 길이며,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보아야 할 모든 것들을 보도록 빛을 비추어 주는 유일한 빛이라는 사고가 우리에게 확실히 자리 잡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온갖 경솔한 처신에서 지켜 주고 또한 억제시켜 줄 것이다. 그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가 바른 길을 벗어나게 되고, 결국 어둠 속에 잠기게 되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방황하고 미끌어지고 넘어지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이 사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는 것 이외에 예정에 대한 다른 지식을 추구한다는 것은 길도 없는 황야를 걸으려 한다거나, 아니면 어둠 속에서 보기를 바라는 것 못지않게 정신 나간 짓이라는 것이다.²³¹⁾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 하나에 대해서 마음과 귀를 열도록 허용하도록 하자. 다만, 여기서 주께서 그의 거룩한 입술을 다무시면 그 즉시 신자도 탐구의 길을 단아야 한다는 단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로서 침착하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법칙은 바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우되 하나님께서 가르침에 종지부를 찍으시면 거기서 그치고 그 이상 지혜를 얻기를 중단하는 것이다.²³²⁾

갈방은 예정을 탐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신성한 경내를 침범하는 것

229) 최윤배외 3인,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 유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254쪽.

230) Inst., III xxiii 12.

231) Inst., III xxi 2.

232) Inst., III xxi 3.

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인간의 호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만 머물러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정의 지혜를 이해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기리고 높이 받들어서 우리 속에 경이와 놀라움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하셨기 때문이다.²³³⁾

칼뱅은 영원한 예정(God's eternal decree)을 “하나님은 각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가 원하신 바를 친히 그의 영원하신 작정으로 말미암아 결정하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가리켜 예정이라 부른다.”고 이해했다.²³⁴⁾ 즉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한 조건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미리 정해져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저주가 미리 정해져 있어서 생명과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예정론의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칼뱅은 예정의 특수성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취급한다.²³⁵⁾

생명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선포되지 않을뿐더러, 그것을 전해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항상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다양한 판단 속에 하나님의 판단의 놀라운 깊이가 드러난다. 이러한 다양한 결과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의 결정을 보게 된다.²³⁶⁾

칼뱅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품길 원하는 자들과, 진노를 당할 자들을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겠다고 선포하셨는데, 이것은 서로 완전하게 일치한다고 주장한다.²³⁷⁾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들도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두 유기된 자들이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과 유기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정은 칼뱅에게 있어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보편성을 의미한다. 칼뱅은 복음이 전해질 때,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운명적으로 버려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성령의 숨겨진 신비한 사역의 차원에 포괄되어 있

233) Inst., III xxi 1.

234) Inst., III xxi 5.

235) 정승훈, 『종교개혁과 칼빈의 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09쪽.

236) Inst., III xxi 1.

237) Inst., III xxiv 17.

다고 말한다.²³⁸⁾ 생명과 창조의 영인 성령께서 숨겨진 비밀한 사역을 유기된 자들에게 열어 놓을 때, 이들도 성령의 역동적인 능력에 의지한다. 하나님은 성령의 숨겨진 사역을 통해 구원의 포괄성을 열어 놓으신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예정된 자들과 유기된 자들 모두에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갈뱅이 구원론 틀에서 이야기하려는 예정의 은총이다.²³⁹⁾ 따라서 예정된 자들은 영적 이기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유기된 자들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과 선교의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갈뱅의 예정론에는 중요한 관점과 특징들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나 행위의 공로를 철저히 배격한다. 따라서 갈뱅은 인간의 공로에 근거한 예지예정론을 거부한다. 예지예정론은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어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어 악한 일을 할지 미리 다 아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할 사람은 미래에 행할 착한 행위에 근거하여 그를 구원받을 자로 미리 예정하여 선택하시고, 악한 일을 할 사람은 미래에 행할 악한 행위에 근거하여 그를 미리 유기된 자로 예정하신다는 것이다. 결국, 착한 사람은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게 되고,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한행위의 결과로 버림을 받게 되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의지와는 무관하게 인간의 행위에 종속하게 된다. 예지예정론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공로를 미리 아시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별하신다고 생각한다.”²⁴⁰⁾ 둘째, 선택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 갈뱅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운 마음을 찾으려면 시선을 그리스도께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²⁴¹⁾ 그리스도는 거울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보여 주신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는 인간의 책임도 따른다. 갈뱅은 선택의 원인이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보는 반면, 유기의 원인은 하나님과 인간에게 있다고 함으로써 갈뱅은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책임을 조화시킨다.²⁴²⁾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정한 대로 넘어지지만, 자기의 허물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다.”

238) 정승훈, 『종교개혁과 칼빈의 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10쪽.

239) 위의 책, 111쪽.

240) 최윤배 외 3인, 『개혁신학과 기독교 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257쪽.

241) Inst., III xxiv 5.

242) 김종희, “칼빈의 예정론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 『칼빈연구: 제 2집』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65쪽.

243) 위의 책, 66, 71쪽.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가 예정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드러나는 갈뱅의 예정론은, 인간의 공로와는 무관할지라도 인간의 책임은 전혀 배제하지 않는다.²⁴³⁾ 넷째, 예정은 이미 창세전에 선택되었다고 말하는 데 이것은 인간의 공로를 배제하기 것이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엡1:4-5) 그러므로 갈뱅에게 있어서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총이다.²⁴⁴⁾ 다섯째, 예정은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²⁴⁵⁾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오로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여섯째, 예정된 자들에게는 견인의 은혜를 주신다. 견인(perseverance)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디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끝까지 견디는 견인이 덧붙여질 때, 부르심과 믿음에 대한 확신에 거할 수 있다.

갈뱅은 예정에 대한 논의를 위험한 바다에 비유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들을 올바르게 정당하게만 살핀다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위로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갈뱅에게서 예정은 경건을 강조하는 중요한 교리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예정론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며 타락한 존재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시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예정론은 타락한 자를 경건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설계이다.²⁴⁶⁾ 예정론은 꿀 같이 단 맛이 나는 하나님의 위로의 교리이다.

VII. 경건과 삶

244) 위의 책 61쪽.

245) Inst., I xvii 3.

246) 최태영, “칼빈의 신학과 영성,” 『조직신학 속의 영성: 한국조직신학회 논총 7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37쪽.

갈뱅에게 있어서 경건은 신앙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깊이 관계된다. 즉, 경건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갈뱅은 경건을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경건을 향한 갈망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거룩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²⁴⁷⁾

갈뱅에 의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는 경건에 있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훈련을 받아야 한다.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요, 중간이요, 끝이다. 그것이 완성되는 곳에 부족한 것이란 없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직 경건에만 집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²⁴⁸⁾

그러면 경건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거룩함을 목표로 삼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²⁴⁹⁾

갈뱅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은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²⁵⁰⁾ 그러므로 경건한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갈뱅은 그리스도인의 경건훈련을 위한 중요한 실천 방법으로 자기부정과 십

247) Inst., III xix 2.

248) 『디모테전서 주석』, 4:8

249) Inst., III vi 2.

250) Inst., III vi 3.

자기를 짐과 내세에 대한 묵상, 그리고 현세의 선용,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등을 들고 있다.²⁵¹⁾ 경건이 그리스도인의 삶 전 영역에서 여러 형태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깔뱅의 이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A. 자기 부정

경건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깔뱅은 『기독교 강요』 제 3권 7장의 제목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기 부정의 근거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즉, 우리의 모든 감각을 비워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변화되며,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²⁵²⁾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하나님 중심의 자아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중심적인 자아란 영혼이 모든 이기적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려있게 된 자아를 의미한다.²⁵³⁾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시도록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으로 성령께 완전히 복종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며 통치하시도록 순응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건이란 죄악들을 벗어 버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²⁵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절정은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으며, 그리스도를 모방할 때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극히 완전하신 형상이심을 보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과 일치하도록 새롭게 될 때에, 지식과 순전함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하

251) 최태영, “칼빈의 신학과 영성,” 『조직신학논총: 제7집』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2), 40쪽.

252) Inst., III vii 1.

253) 최승기, “장 깔뱅과 로올라의 이냐시오의 비교연구: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칼빈 연구: 제 4집』 (서울: 한국 장로교출판사, 2005), 23쪽.

254) Inst., III vii 3.

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²⁵⁵⁾

“갈뱃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성화와 관련된다. 하나님의 형상과 신생아의 관계성, 즉 형상과 성화의 동일성은 분명하다. 여기서 말하는 성화는 주의 영광이 모든 이에게,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가시적이 되는 성화이다. 갈뱃은 그 가시적 성화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통치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결과로써 말하고 있다. 갈뱃은 그것을 ‘자기 부정’이라고 말한다.”²⁵⁶⁾

갈뱃은 교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 때 수반되는 것이 자기부정이며, 자기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보았다.

갈뱃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기부정은 이웃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온다. 자기부정이 먼저 일어나야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부정은 이웃을 도와주게 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된다. 자기를 부정할 때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자기를 위하는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자기’ 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다.²⁵⁷⁾

갈뱃에 의하면, 이웃을 향한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사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된다.²⁵⁸⁾

갈뱃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자기 부정을 통해 자기 사랑

255) Inst., I xv 4.

256) 김선희, “갈뱃의 인간론,” 미간행 석사(Th.M.M)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5년, 55쪽.

257) Inst., III vii 5.

258) Inst., III vii 6.

을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희생의 사랑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경건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의 경건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며 증거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고서는 모든 면에서 사랑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그 사람의 경건의 증거가 된다.²⁵⁹⁾

그러므로 참된 경건은 자기 부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기 부정은 경건의 시작이다.²⁶⁰⁾ 그리스도인은 자기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게 된다. 칼뱅의 신앙적인 가치관은 자기의 유익보다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 이 일은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하며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사랑의 실천과 정의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²⁶¹⁾

B. 십자가를 짐

십자가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건으로 인도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 칼뱅에 의하면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²⁶²⁾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큰 위로를 얻게 된다.²⁶³⁾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며 연약한 존재인가

259) Inst. II viii 53.

260) L. Joseph Richard, 『칼빈의 영성』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175쪽.

261) 배경식, “칼빈의 법과 제도 안에서의 경건,” 『칼빈연구: 제3집』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332쪽.

262) Inst., III viii 1.

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평화로운 상황에서는 자기들의 큰 인내와 한결같은 의지를 우쭐대며 자랑하였지만, 역경을 통해서 낮아지고 나서는 그런 것이 모두 위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²⁶⁴⁾

갈뱅은 고난과 역경으로 겸손해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십자가가 주는 유익은 “우리를 낮춤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와 소망을 안겨 주는 것이다.” 그런 이유만으로도 갈뱅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 우리에게 절실함을 강조한다.²⁶⁵⁾ 십자가는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수단이 된다.

갈뱅에 의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다. 옛 스토아 철학자들이 위대한 영웅들은 마치 돌과 같이 역경이나 변영이나 슬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 것은 가혹한 철학이라고 비판한다. 오히려 주님은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마5:4)라고 분명히 선포하셨다.²⁶⁶⁾ 만약 눈물 흘리는 것이 정죄를 받는다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신”(눅 22:44)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마26:38)라고 고백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갈뱅은 반문한다.²⁶⁷⁾

갈뱅에 의하면 고통과 불행을 당할 때 두려운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라면, 모든 감정들을 길들이고 정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 어렵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기쁨으로 견디며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263) 최승기, “장 갈뱅과 로올라의 이냐시오의 비교연구: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칼빈 연구: 제 3집』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24쪽.

264) Inst., III viii 2.

265) Inst., III viii 3.

266) Inst., III viii 9.

267) Inst., III viii 9.

의 뜻에 따르는 것이 참 경건의 모습이다.

갈뱃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육신에 대항하고, 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싸움에는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보다는 인내하며 견디는 데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²⁶⁸⁾

갈뱃에게서 고난과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환난을 인내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을 유익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견디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기쁨이 가득하게 되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다.²⁶⁹⁾ 갈뱃은 십자가의 쓰라린 고통을 신령한 기쁨으로 이기는 일이 경건의 길임을 강조한다.

C. 내세에 대한 묵상

경건은 내세에 대한 묵상을 요청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세에 대한 묵상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갈뱃은 환난이 이 세상의 삶에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모든 환난에는 목적이 있다.

곧, 우리로 하여금 될 수 있는 대로 현세의 삶을 무시하고, 그리하여 내세의 삶을 바라고 소망하도록 자극을 받는 데 익숙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²⁷⁰⁾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도록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전쟁과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이 헛되다는 것을 분명히

268) Jill Rait와 3인, *Christian Spirituality* 이후정·임성욱·지형은 역, 『기독교 영성(II)』(서울: 도서출판 은성, 2004), 479쪽.

269) Inst., III viii 11.

270) Inst., III ix 1.

깨닫도록 만드셨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며, 내세에 대한 묵상으로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내세에 대한 묵상은 경건으로 인도한다. 현세를 경멸하지 않으면 내세를 깊이 열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는 면류관을 기대하지 말고, 오직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의 면류관을 기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을 멸시하는 자세가 확실하게 생기기 전에는 절대로 장차 올 내세(來世)의 삶을 진지하게 마음을 쏟고 그 삶을 사모하고 동경하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²⁷¹⁾

갈뱅은 현재의 일상적인 삶 안에서 윤리를 강조하면서도 장차 도래할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을 강조하였는데 사후의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 있지 않다면 우리의 처지는 짐승과 같기 때문에, 불안과 불행이 많은 현세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을 면류관을 기대하며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²⁷²⁾

그러므로 환난이 하나님의 훈련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을 무시하고 전심으로 내세의 삶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갈뱅은 현세를 무시하는 훈련은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 땅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선물이기 때문이다.²⁷³⁾ 갈뱅은 아름다운 자연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권면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을 그렇게 멋지게 장식해 주신 것은 결코 작은 영광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아름다운 세상의 구경꾼이 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의 풍성함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다.²⁷⁴⁾

271) Inst., III ix 1.

272) 최윤배 외6인, 『개혁교회의 종말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부, 2005), 151쪽.

273) Inst., III ix 3.

274) 『시편주석』 104: 31.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 용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선물인 것을 분명히 알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갈뱅이 현세를 경멸하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결국은 덧없기 때문 이다. 덧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²⁷⁵⁾ 그렇기 때문 에 이 땅의 삶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는 것과 비례해서 더 나은 삶을 사모하며, 장 차 올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한다.

이 땅의 삶을 하늘의 삶과 비교하면, 이 땅의 삶은 먼시를 당하고 발밑에 밟히고 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²⁷⁶⁾

갈뱅은 죄악 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라면, 삶과 죽음의 시기는 주님께 맡기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세에 대한 묵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갈뱅은 “스스로 그리스도인 이라고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사모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을 두려 워하면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무슨 불길한 징조가 되는 것처럼 벌벌 떨고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²⁷⁷⁾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의 삶은 하늘나라를 향한 순례의 삶이다. 죽음을 통해 서 순례를 마치고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 지면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영광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죽 음을 더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 갈뱅의 생각이다. 장차 있을 부활과 구원에 대한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 같은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결정해 주는 것으로 갈 벵 사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²⁷⁸⁾

275) 최태영, “칼빈의 신학과 영성,” 『조직신학논총: 제7집』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2), 44쪽.

276) Inst., III ix 4.

277) Inst., III ix 5.

갈뱅에 의하면,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은 우리에게 ‘최후의 부활’의 중요성을 깨우치는데 하나님과의 연합을 사모할 때 부활의 소망에 힘을 준다.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받아 영생을 지녔고 장차 몸의 부활을 통한 종말론적 실존을 소망하고 있다고 생각했다.²⁷⁹⁾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머리를 높이 들고 하늘에 마음을 두면서 현재의 일들을 초월해 나가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영광의 그 날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

주께서 그의 신실한 종들을 영접하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영광과 희락의 옷을 입히시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먹이시고, 그들을 높이사 그와 함께 고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한 마디로 말해서 그들을 영접하사 그의 복락에 함께 참여하게 하실 그날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²⁸⁰⁾

갈뱅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분명하게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귀를 무찌르고 승리하게 되며, 평안을 찾게 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세상을 경멸할 때 내세에 대한 묵상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세에 대한 묵상은 십자가의 훈련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건의 중요한 방편이 된다.

D. 현세의 선용

내세를 묵상하면서 현세의 것을 선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갈뱅에 의하면, 이 세상을 사는 지혜는 세상의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것이다.²⁸¹⁾ 현세의 삶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의 길이라면, 순례에 방해되지 않는 현세의 선한 것은 선용되어야 한다.

278) 심창섭, “리베르틴과의 범신론에 대한 칼빈의 신학적 입장,” 『칼빈신학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263쪽.

279) 최윤배 외6인, 『개혁교회의 종말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부, 2005), 152쪽.

280) Inst., III ix 6.

281) Inst., III x 1.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삶을 지탱해 주는 이러한 필수적인 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것들 중에도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이다.²⁸²⁾

그런데 갈뻥은 성경이 물질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에 규범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곧 하나님의 섭리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사용할 때에 그것들을 만드시고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사용하면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²⁸³⁾

갈뻥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제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없이 먹고 마실 때 죄를 짓게 된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이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들(gifts)의 모든 사용에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추구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²⁸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집착해서 하늘나라를 망각해서도 안 되고, 종말적인 관심에만 사로잡혀서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이시면서 내재(內在)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내세를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서도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갈뻥은 이것이 삶의 원칙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따라서 만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사용해야 한다.²⁸⁵⁾

하나님은 음식을 생명을 지탱하는 필수품으로 창조하셨지만, 아울러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의복도 마찬가지다. 필수적인 요소를 만족시키기도 하지만, 아름다움과 정숙함을 충족시켜 준다. 풀, 나무, 열매들도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 이외에 아름다움과 향긋한 냄새를 제공한다. 갈뻥에 의하면,

282) Inst., III x 1.

283) Inst., III x 2.

284) 최윤배, “개혁교회 전통에서 경제관: 갈뻥을 중심으로,” 『교육교회』 11월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2006), 11쪽.

285) Inst., III x 2.

주님께서는 많은 물건들을 필수적인 용도 외에도 다른 특별한 가치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즐기며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이다.²⁸⁶⁾ 그러므로 갈뱅은 사물의 필수적인 용도만을 인정하고 그 외의 용도는 부인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며 사람을 목석(木石)과 같이 여기는 행동이라고 말한다.²⁸⁷⁾ 그러나 갈뱅은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육체의 정욕이란 절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모든 한계를 깨뜨려 지나치게 되고 …… 자유를 빙자하여 온갖 방종을 다 허용하는 자들이 거기에 편승하기 때문이다. ……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지으신 분을 알고 또한 그의 은혜에 대해 감사를 느끼도록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는 한 가지 길이다.²⁸⁸⁾

갈뱅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13:14)는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한 것은, “세상적인 것에 너무 자유를 허용하면 정욕이 끊어 넘쳐서 도저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즐거움을 주는 세상적인 것들은 사람의 정신을 순결에서 떠나게 하고 마음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정욕을 피하는 확실하고 빠른 길은 현재의 삶을 멸시하며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삶을 묵상하는 것이다.”²⁸⁹⁾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 중용의 삶을 살아야 한다. 즉, 현세의 삶을 무시하고 내세를 동경하는 삶이며, 또 하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며, 목적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현세를 잘 선용하는 삶이다. 갈뱅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금욕주의와 방종주의 사이에서 중용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영생을 갈망할 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순례의 길에 방해 되지 않고, 돕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²⁹⁰⁾ 갈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세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286) Inst., III x 2.

287) Inst., III x 3.

288) Inst., III x 3.

289) Inst., III x 4.

290) 한상화, “칼빈의 경제 윤리,” 『칼빈신학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408쪽.

291) 박은자, “칼빈의 디아코니아 사상,” 미간행 석사(Th.M.M)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

감사하면서, 신자들의 현세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 하므로 우리는 이 삶을 멸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²⁹¹⁾

그러므로 세상의 삶에 대해서 경건한 사람이 취할 태도는 자기를 위해서는 세상의 삶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현세의 것을 선용하는 것이다.

E.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칼뱅의 경건은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으로 요약된다. 칼뱅에게서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²⁹²⁾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졌으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생각하거나 말하지도 말고, 계획하거나 행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²⁹³⁾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만 한다. 피조물 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창조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칼뱅의 핵심사상이다.

칼뱅의 요리문답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다.

1. 목사: 인생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2. 목사: 어찌하여 그런가?

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세상에 내보내신 것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분은 우리의 삶의 근원(commencement)이신고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삶을 영위함은 지당한 일입니다.²⁹⁴⁾

교, 54쪽.

292) L. Joseph Richard, 『칼빈의 영성』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160쪽.

293) Inst., III vii 1.

294) Calvin. John, *Les Catéchismes De L'Église de Genève*. 한인수 역, 『칼뱅의 요리문

결국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칼뱅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은 국가의 모토에도 적용된다. 그는 1558년 의회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좋은 제도, 이것이 우리의 모토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지향하고 있다.²⁹⁵⁾ 칼뱅은 시민 정부를 질서의 수호자이며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에 필요한 존재로 본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며 참된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순례의 삶을 돕는데 시민 정부는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²⁹⁶⁾ 칼뱅의 『기독교 강요』는 국가에 대한 언급으로 끝을 맺는데, 이는 그의 경건의 영역이 국가에 까지 이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 칼뱅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완전한 규범이 하나님의 율법에 제시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 주요 원리는 바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곧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이 신자의 의무라는 것이다(롬12:1).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는 권면의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드러졌으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생각하거나 말하지도 말고, 계획하거나 행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 하나님의 것이다.²⁹⁷⁾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성령께 굴복하며 복종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사시며 통치하는 삶을 살게 된다.

칼뱅에 의하면, 자기 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을 향한 긍정

답』 (서울: 경건, 1995), 101쪽.

295) 이양호, “칼빈의 영성(II),” 『기독교 사상: 통권 제 420호』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3), 236쪽.

296) Inst., IV xx 2.

297) Inst., III vii 1.

적인 자세를 갖게 한다. 즉,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을 도와주며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²⁹⁸⁾ 그러므로 갈뱅의 경건의 특징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에 있다.²⁹⁹⁾ 세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소중히 여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박해와 고난이 있지만 인내와 순종을 배우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경건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다.

갈뱅은 내세에 대한 목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연결된다고 말한다. 현세의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여 항상 감사하며, 하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순례를 하는 동안 현세의 것을 선용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이다.

갈뱅은 신앙 고백의 최종 목적을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동원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으며, 또한 우리의 그러한 모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일깨워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³⁰⁰⁾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실천할 때, 비로소 경건에 이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갈뱅의 영적인 모토는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이다. 이것은 갈뱅의 삶의 일관된 목적이며 갈뱅의 신학 전체의 주춧돌에 해당되는 주제이다.³⁰¹⁾ 갈뱅이 자신의 신학을 체계화한 가장 중추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논증하고,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기독교 강요』(1559)에도 잘 드러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향상을 위한 안내서인 이 책의 신학적인 작업에 흐르고 있는 실천적이고 목회적인 관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갈뱅의 신학적 안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는 것.”이라고 말

298) Inst., III vii 5.

299) L. Joseph Richard, 『칼빈의 영성』(서울: 기독교 문화협회, 1986), 177쪽.

300) Inst., IV xv 13.

301) 최승기, “장 갈뱅과 로울라의 이냐시오의 비교연구: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칼빈 연구: 제 3집』(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9쪽.

302) 위의 책, 9쪽.

할 수 있을 것이다.³⁰²⁾ 가톨릭 사학자인 루이 부이는 깔뱅의 최우선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확증한다. “깔뱅이 개신교 영성에 끼친 가장 중요한 공헌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의 개념이다. 아니 보다 더 잘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기독교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그의 가장 중요한 공헌이다.”³⁰³⁾

303) 위의 책, 10쪽.

VI. 결론

A. 요약

칼뱅은 ‘경건의 신학자’이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경건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말 속에서 칼뱅의 신학적 사고와 삶 속에서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었는지 충분히 보여준다.

칼뱅 신학의 결정체인 『기독교 강요』는 그 책 전체를 경건에 할애했을 만큼 그의 궁극적 관심은 경건이며, 그의 신학 전체의 방향이며 목적이었다. 칼뱅은 자신의 책이 ‘신학대전’이 아니라 ‘경건의 대전’으로 불러 지길 원했을 만큼 『기독교 강요』를 이끌어가는 주된 관심은 경건에 있다.

칼뱅이 말하는 경건은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랑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칼뱅의 경건의 핵심은 하나님 경외에 있다.

칼뱅은 경건의 원천을 성령과 계시에 둔다. 그에 의하면 성령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본질은 영원성과 자존성으로 규정한다. 또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3위의 신적 인격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 본질이시며, 동시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칼뱅은 성령의 사역을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으로 나누었다. 성령의 일반 사역은 우주와 자연, 역사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며, 성령의 특별 사역은 선택의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주어지는 은사이다.

칼뱅의 성경관은 계시론의 범주 안에서 취급하는데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가지가 있다. 일반 계시는 인간, 역사, 자연, 우주 등 모든 피조물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인간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기술, 과학, 문화 등을 발전시킬 수 있지만,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별 계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께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내적으로 조명하실 때, 비로소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duplex cognitio)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칼뱅에게 있어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

속주 하나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외적 수단이 된다.

갈뱅의 신학사상의 주제는 경건이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학이라면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갈뱅에게 있어서 경건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 갈뱅의 신학 속에서 나타난 경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갈뱅에게 있어서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필수조건이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경건의 출발점이 된다. 이처럼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하고 경건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갈뱅에게 있어서 경건과 학문은 결합되어 있다. 갈뱅에게 있어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관계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인간을 향한 의와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발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 사랑은 이웃을 향한 수평적 사랑으로 뻗어 나가는 것이다.

갈뱅에게 있어서 예배는 경건 생활의 꽃이며, 경건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된다. 갈뱅은 경건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둔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두려움이 하나가 될 때 순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고 본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는 경건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다.

갈뱅은 “기도는 신앙의 주된 훈련이며 이로써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들을 얻는다.”고 말함으로써 기도가 그의 경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갈뱅에게서 경건은 인간을 향한 선한 양심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뿐만 아니라 신앙과 기도를 포함한다.

갈뱅의 창조교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명상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경건에 이르게 한다. 갈뱅은 우주의 정교한 질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명상할 수 있는 거울이라고 말한다. 갈뱅에 의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되었다. 그는 6일간의 창조를 지지하는데, 사람을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 때문이다. 갈뱅은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탁월한 존재로 본다. 갈뱅은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 사명을 부여하셨으며, 인간은 청지기로서 피조물을 잘 보존하고 양육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갈뱅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무로부터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

물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섭리주 하나님으로 이해한다. 모든 일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발생된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섭리주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확신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섭리에 대한 거룩한 묵상은 우리를 경건의 길로 인도한다.

갈뱅의 예정 교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확신시켜준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올바른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경건을 강조하는 교리이다. 갈뱅은 신자들의 경건 생활의 훈련을 위해서 예정교리를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기 위해서 경건을 선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예정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갈뱅의 예정 교리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갈뱅에게 있어서 경건은 신앙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깊이 관계된다. 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는 경건에 있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갈뱅에게서 경건한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갈뱅은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의 실천 방법으로 자기부정과 십자가를 짐과 내세에 대한 묵상, 그리고 현세의 선용,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을 들고 있다.

갈뱅에 의하면 경건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자기부정의 근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갈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기부정은 이웃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자기부정이 먼저 일어나야 남을 도와주며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자기부정은 경건의 시작이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게 된다.

갈뱅에게서 십자가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건으로 인도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쓰라린 고통을 신령한 기쁨으로 이기는 일이 경건의 길이다.

갈뱅에 의하면, 환난이 이 세상의 삶에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며, 내세에 대한 목상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이처럼 내세에 대한 목상은 경건으로 인도한다.

내세를 목상하면서 현세의 것을 선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현세의 선용이란 세상의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현세의 선한 것은 선용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만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 중용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현세의 삶을 무시하고 내세를 동경하는 동시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삶에 대해서 경건한 사람이 취할 태도는 자기를 위해서는 세상의 삶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현세를 잘 선용하는 것이다.

갈뱅의 경건은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로 요약된다.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 한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만 한다. 피조물 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창조된 인간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갈뱅의 핵심사상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실천할 때 비로소 경건에 이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갈뱅의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과 신앙에 뿌리를 두면서도, 이웃을 향한 사랑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직적 측면과 이웃, 국가, 생태 등 수평적인 측면을 통해서 갈뱅의 균형 잡힌 경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을 갈뱅의 경건의 통전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갈뱅의 경건의 통전성에 나타나는 두 가지 측면은 ‘그리스도와 의 신비한 연합’과 ‘중간의 길(via media)을 통한 하나님 질서(ordō Dei)와 하나님의 나라’이다. 갈뱅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신비한 연합’으로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의 유익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말한다. ‘신비한 연합’은 갈뱅과 개혁신학 영성의 특징으로, 성령과 신앙을 통한 연합이며, 자신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강한 윤리적 책임으로 부름

을 받는 연합이다. 갈뱅의 신비한 연합은 개인적, 교회론 즉 성례의 삶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정치, 사회적 봉사(political, social Diakonia)와 환경, 생태를 포함한다.

갈뱅은 교회의 직제를 무시하고, 열광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는 재세례파와, 성령을 약화시키면서 교회의 직제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는 로마 가톨릭 교회 사이에서, 전자에게는 도구와 수단을, 후자에게는 영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양극단 진영 사이에 ‘중간의 길’을 제시해 주었다. 갈뱅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외적인 수단은 말씀과 성례전이 성령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수단이 되며,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은혜의 외적 수단은 바로 교회와 국가이다.

갈뱅에게 있어서 경건은 하나님 경외와 이웃에 대한 사랑, 즉 율법의 두 서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갈뱅의 경건은 통전적인 의미를 지닌 온전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B. 평가 및 제언

본 논문을 통해서 갈뱅의 경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갈뱅에게서 영성과 경건이 어떤 관계인가를 알게 되었다. 영성이란 용어가 더 광의적이고, 1960년대 이후 종교계와 신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용어이지만, 갈뱅은 협소하고 제한적인 용어인 ‘경건’을 사용하였다. 경건이 매우 제한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갈뱅에게서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데서 비롯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이다.

둘째, 갈뱅의 경건 개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갈뱅의 경건은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봉사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웃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온 것이므로, 갈뱅의 경건의 핵심은 하나님 경외이다.

셋째, 갈뱅의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외와 사랑과 신앙에 뿌리를 두면서도, 이웃을 향한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직적인 측면과, 삶의 모든 영역인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생태와 자연 등 수평적인 측면을 통해서 갈뱅의 균형 잡힌 경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을 “갈뱅의 경건의 통전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갈뱅은 경건의 원천을 성령과 계시로 보았는데, ‘영적’이라는 프랑스 형용사 ‘스빠리뚜엘’이라는 단어를 성령론과 관련시켜 사용한 것은 갈뱅의 경건 개념이 성령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 준다. 특히 갈뱅은 특별계시로서 말씀도 성령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기록된 성경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적 조명하실 때 비로소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갈뱅은 성령의 사역의 범위를 인간의 내면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이웃, 사회, 문화, 경제 더 나아가서 자연, 생태계와 우주까지 이르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광대한 갈뱅의 경건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다섯째, 갈뱅의 경건은 실천적인 개념이다. 자기 부정, 십자가를 짐, 내세에 대한 묵상, 현세 선용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이것이 경건에 이르게 되는 길임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필자는 본 논문을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에는 갈뱅주의는 있으나 갈뱅은 없다’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는데 그만큼 한국 교회가 갈뱅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말일 것이다. 한국 교회는 『기독교 강요』에 서술된 교회와 정치체제를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그것들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교회의 경영이 불합리해지고 심지어 교회가 사회에 지탄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갈뱅은 ‘오직 성경을 통해 성경 전체’(Scriptura tota: Scriptura sola)를 해석하려고 부단히 노력한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였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를 계시한 성경이 신학과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개혁 정신을 가진 장로교회라면 『기독교 강요』를 신앙의 내용을 담은 교리서로, 오늘의 한국 장로교회들에게 기독교의 진수를 보여 주는 변증의 책으로 이해하고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쓰러진 한국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그 결과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1. 1차 자료

A. 번역서적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by Ford Lewis Battles. 양낙홍 역. 『기독교 강요』 (1536).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8.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원광연역. 『기독교 강요』 (최종판).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_____ . 기독교 강요 요약(1537). 이형기 역.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_____ . *The Piety of John Calvin*. 이형기 역. 『칼빈의 경건』.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0.

_____ . *Les Catéchismes De L'Église de Genève*. 한인수 역. 『갈뱅의 요리문답』. 서울: 도서출판 경건, 1995.

_____ . The Calvin Commentary. 성경주석출판위원회 편역. 『구약성경주석』, 『신약성경주석』. 서울: 성서교재 간행사, 1983.

B. 서양서적

Battles, Ford Lewis. "True Piety According to Calvin," I. J. Hesselink and D. K. McKim(ed), *Interpreting John Calvin*, Grand Rapids: Baker Book, 1996.

McGrath, Alistdr E. *Christian Spirituality*, Blackwell Publishers, 1999.

Richard, Lucien Joseph.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Atlanta, Georgia: John Knox Press, 1974.

2. 2차 자료

A. 번역 서적

- Bouswsma, William J. 이양호, 박종숙 역. 『칼빈』. 서울: 나단 출판사, 1993.
- Deidre, LaNoue. 유해룡 역. 『헨리나우웬의 영성』.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 도날도어. 황종렬 역. 『영성과 정의』. 경북: 분도출판사, 1990.
- Hoekema, Anthony A. *Saved by Grace*. 류호준 역. 『개혁주의 구원론』.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04.
- I. John Hesselink, *On Being Reforme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Common Misunderstandings*. 최덕성 역. 『개혁교회 전통』. 서울: 본문과 현장 사이, 2000.
- Iris V. Cully. *Education for Spiritual Growth*. 오성춘, 이기문, 류영모 역.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6.
- J. Moltmann. 김균진 역. 『생명의 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Jill Rait, Bernard McGinn, John Meyendorff. *Christian Spirituality: High Middle Age Reformation*. 이후정, 엄성옥, 지형은 역. 『기독교 영성 (II): 중세부터 종교 개혁까지』. 서울: 은성, 2004.
- 존, 매쿼리. 장기천 역. 『영성에의 길』. 서울: 전망사, 1986.
- McGrath, Alister E. *Christian Spirituality*. 김덕천 역. 『기독교 영성 베이직』. 서울: 기독교서회, 2006.
- Paker, T. H. L. Calvin: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박희석 역. 『칼빈 신학 입문』.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 Philip C. Holtrop, 박희석, 이길상 역, 『기독교 강요핸드북』.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5.
- Thomas, Hart. *Spiritual Quest*. 최대영 역. 『현대인의 영성 탐구』. 서울: 은성출판사, 2000.
- Norman, Shawchuck 외 4인. *How to Conduct a Spiritual Life Retreat*. 오성춘, 황화자 역. 『영성 훈련지침서』. 서울: 대한 예수장로총회출판국, 1991.

- Richard, L. Joseph.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칼빈의 영성』.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6.
- Rice, Howard L. *Reformed Spirituality*. 황성철 역. 『개혁주의 영성』.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5.
- 티모시, 조지. 개혁자들의 신학. 이은선, 피영민 역. 『개혁자들의 신학』. 서울: 요
 단 출판사, 1994.
- U. T. 홉즈. 김외식 역. 『목회와 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B. 동양 서적

- 김명용. 『이 시대의 바른 기독교 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2.
- 나용화. 『영성과 경건』.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노영상. 『영성과 윤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 방지형 외 5인. 『기독교 영성 운동- 21세기를 조명한다』. 서울: 도서출판 영성,
 1999.
-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성광 문화사, 1997.
- 이영두. 『기독교 영성이해』. 서울: 은성출판사, 2000.
- 임창복·최운배. 『개혁신학과 기독교 교육』.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7.
- 엄두섭. 『기독교 영성의 흐름』. 서울: 은성출판사, 1998.
- 오성춘. 『영성과 목회-기독교 영성훈련의 이론과 실제-』. 서울: 장로회신학대
 학교출판부, 1989.
- _____. 『신학 영성 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 오형국. 『칼뱅의 신학과 인문주의』. 경기: 한국학술정보(주), 2006.
- 윤철호. 『현대 신학과 현대 개혁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 이종성 외 3인. 『통전적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 원종국. 『위대한 영성가들』. 서울: 도서출판 KMC, 2006.
- 정승훈. 『종교개혁과 칼빈의 영성』.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0.
- 홍성주. 『21세기 영성신학』. 서울: 은성출판사, 1995.

- 현요한. 『성령, 그 다양한 얼굴』.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5.
- 최윤배 외 3인 공저.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3.
- 최윤배 외 6인. 『개혁교회와 종말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5.

C. 논문

- 김선권. “갈뱅의 통전적 성령론.” 미간행 석사(Th.M)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7.
- 김선희. “갈뱅의 인간론.” 미간행 석사(Th. M. M.)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6.
- 박계순. “갈뱅의 성령론.” 미간행 석사(Th.M.M)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5.
- 박상원. “갈뱅의 교회론: 교회의 목적과 본질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Th. M. M.)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7.
- 박은자. “칼빈의 디아코니아 사상.” 미간행 석사(Th.M.M.)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7.
- 최윤배. “갈뱅(Calvin)신학에 나타난 지식과 경건의 관계성 연구.” 미간행 신학대학원(M.Div.)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88.

D. 기타

- 기독교교육연구원. 『교육교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3-1994.
- 김남준. “왜 칼빈의 영성은 리바이벌되지 않는가?” 『그 말씀』 10월호. 통권63호. 1997.
- 김이태. “경건과 학문의 상관성 연구.” 『교회와 신학: 제 12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1980.
- Bouwsma, W. J. “존 칼빈의 영성.” 『신학사상: 제 99집』. 1997.

- 이수영. “경건론.” 『칼빈 신학 해설』 한국칼빈학회(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_____. “영성의 의미에 관한 조직신학적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4』. 한국기독교학회(편). 서울: 양서각, 1988.
- 이은선. “칼빈의 삶과 사상 속에 복음주의 영성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영생의 샘』 통권 71호. 2004.
- 이양호. “칼빈의 영성.” 『기독교사상』 통권 419호, 통권 420호. 1993.
- 유해룡. “칼빈의 영성학 소고.” 『장신논단: 제 16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0.
- 최윤배. “마르틴 부처의 종교개혁과 선교: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제 21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8.
- _____. “칼빈의 가정론.” 『목회와 신학: 통권 227』. 서울: 두란노, 2008.
- _____. “개혁과 종교 개혁자 마르틴 부처의 ‘경건’(pietas)개념.” 『로고스: 제 39호』.
- _____. “바람직한 기독교 가정.” 대한 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편),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 _____. “갈뎡의 영성으로서 경건.” 『개혁교회의 경건론과 국가론』 제 3,4회 종교개혁 기념학술강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편집위원회(편), 2007.
- _____. “개혁교회 전통에서 경제관: 갈뎡을 중심으로.” 『교육교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연구원, 2006.
- _____. 『복음주의 신학』.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의안, 2005.
- 최태영. “칼빈의 신학과 영성.” 『조직신학속의 영성』. 한국조직신학회, 2002.
- 한국조직신학회(편). 『조직신학 속의 영성: 한국조직신학논총 제7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_____. 『생명의 영성: 한국조직신학논총 제 11집』.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_____. 『한국교회와 영성: 신앙과 신학 제 5집』. 서울: 강남출판사, 1998.
- 한국칼빈학회(편). 『칼빈 연구: 창간호-제5집』.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2007
- _____. 『최근의 칼빈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_____ . 『칼빈 신학과 목회』 .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_____ . 『칼빈 신학 해설』 .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